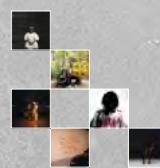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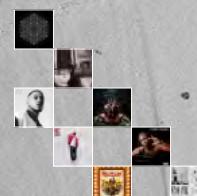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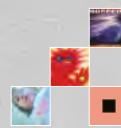
## Full-length



## Introducing



## Editor's Pick



## Featured<sup>2</sup>



## Featured ↑



Classic



Missy Elliott  
《Miss E... So Addictive!》  
Common  
《Be》

# World / KHL

# Haus

# of

# Matters

# 22

may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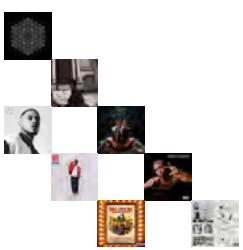
KHL  
@hausofma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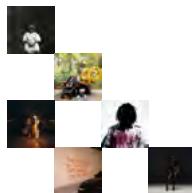
World /  
HAUS OF  
MATTERS

Panchiko «Giniges»  
Bon Iver «SABLE, ABLE»  
«Forever Howling»  
Black Country, New Road  
Morphine «Cure for Pain»  
NOTT! «3»  
UR BUT SKR NK THI YOU LEX IL Missy Elliott «So Addictive»  
Common «Be»  
«(B)»  
Jane Birkin «No Bring Ins»  
Chy Carter «Foxy»  
Fadroon «Foxy»  
Bil & August «More Chaos»  
Keen Corsor «Only Dust Remains»  
Cickwash «Only Deep Thoughts»  
Lil Dicky «Star»  
Will Smith «Angel May Cry»  
Bastard Swordsman «True Story»  
Wu-Tang Clan (Black Sheepson) «The TDF «CULTURE»  
Teto «Maior Que O Tempo»  
e Vicius «Under Music»

## Introduc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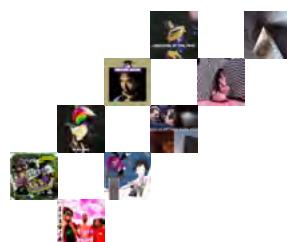
## Full-length



## Classic



## Featured<sup>1</sup>



## Featured<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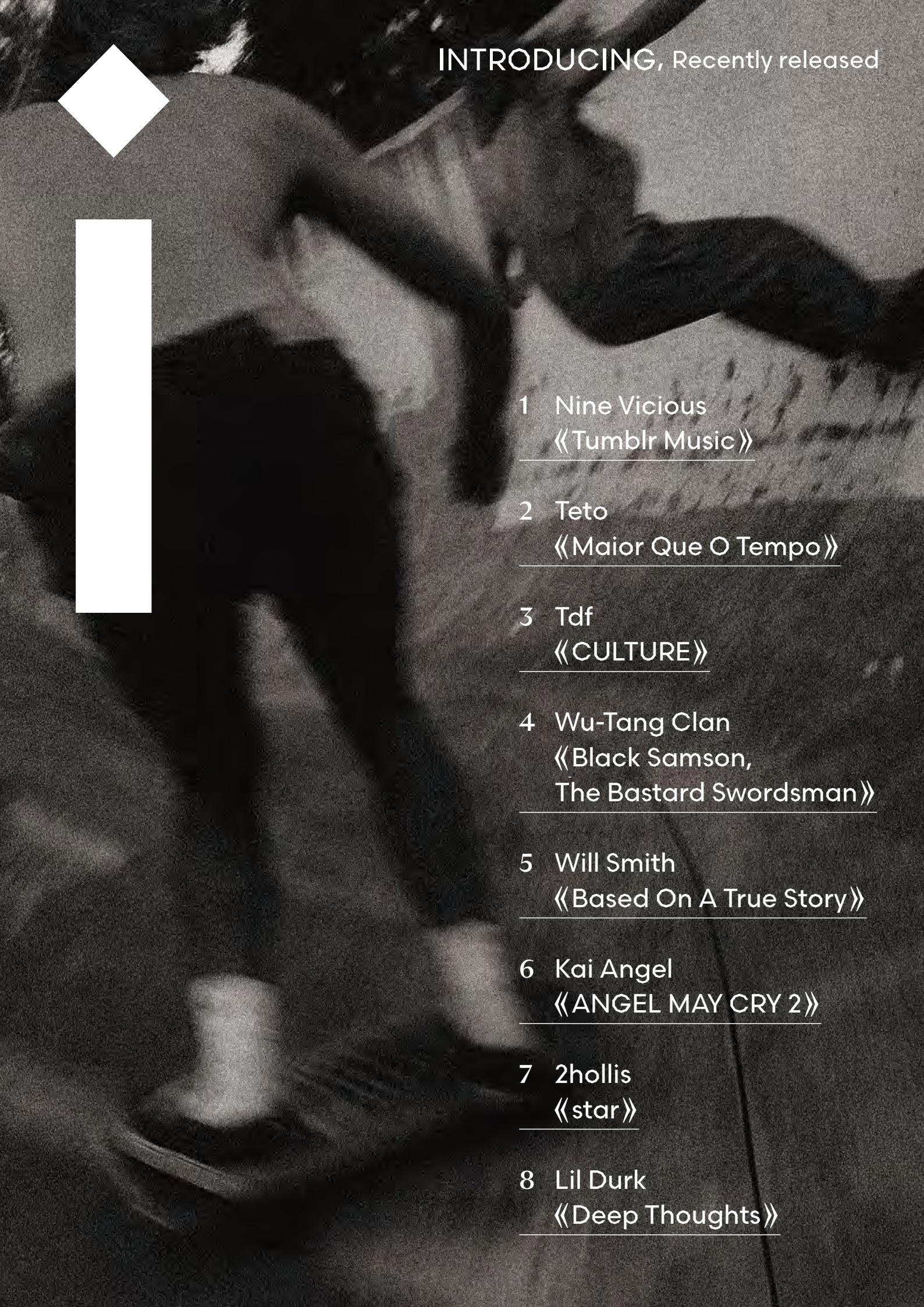


## Editor's Pick



## Edit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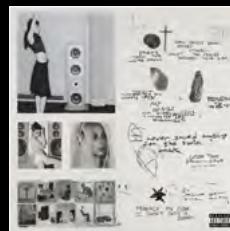
감상주의 ryuzimoto  
자카 SONGCHICO  
loading blvckmvttter 공ZA  
moogsick denim SRUIK SAN



INTRODUCING, Recently released

- 1 Nine Vicious  
《Tumblr Music》
- 2 Teto  
《Maior Que O Tempo》
- 3 Tdf  
《CULTURE》
- 4 Wu-Tang Clan  
《Black Samson,  
The Bastard Swordsman》
- 5 Will Smith  
《Based On A True Story》
- 6 Kai Angel  
《ANGEL MAY CRY 2》
- 7 2hollis  
《star》
- 8 Lil Durk  
《Deep Thoughts》

"다크 플러그(Dark Plugg)라는 틀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네소타 출신의 프로듀서, Tdf는 Playboi Carti, Pi'erre Bourne 탑 비트나 찍던 평범한 프로듀서였다. 그러던 그가 여러 1oneam, xaviersobased 등 여러 언더그라운드 래퍼와의 협업을 통해 벌써 9번째 정규 <Culture>를 발표했다는 사실은 그의 작업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지표일 터. 앞서 언급했듯, 그의 음악은 Pi'erre Bourne에게 큰 영향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몽통하고도 미래적인 사운드의 일렬종대는 - 달콤함을 일부 덜어내고, 무거움을 가미한 Pi'erre 캔디처럼 들린다. 플러그 래퍼들의 컴필레이션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다양한 래퍼들이 <Culture> 프로젝트에 짧고 흐릿하게나마 이름을 각인시키고 떠나기를 반복한다. 이들은 자신을 강조하는 멋없는 행위보다는, 비트에 얼굴을 파묻는 감초 역할을 충실히 해낸다. 따라서 24트랙이라는 부담스러운 길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분위기 형성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편안하게 최면에 걸릴 수 있는 것(게다가 동일한 멜로디 루프가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의 말처럼 Tdf의 음악을 선불리 다크 플러그라 정의하기 어렵다. <Culture>에는 그보다 더 흥미롭고 매혹적인 사운드스케이프와 작업실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아참, 약은 하지 말자.



Released  
25. 3. 13.

- 1 Okaymar - Need Some More
- 2 Okaymar - Been Too Long
- 3 ATL Smook - Still My Patna
- 4 Jojo! - Attached
- 5 Spoof - Bankroll
- 6 NYM Riz - One for Me
- 7 jssr - Numb
- 8 1oneam - Stamped
- 9 ohsxnta - Ghetto Symphony
- 10 Spoof - Bands Gond (feat. Jojo!, Omgkeon)
- 11 BenjiCold - Rave
- 12 Dom Corleo - Water
- 13 wildkarduno - Out of Kontrol / Paparazzi (feat. thr33)
- 14 thr33 - Cassava Leaf
- 15 wildkarduno - Yo Lane
- 16 Smokingskul - BTA
- 17 wildkarduno - Used to Be (feat. Smokingskul)
- 18 Okaymar - Fried
- 19 Okaymar - What You Said (feat. 1oneam)
- 20 Pasta Flocco - Swervo
- 21 Okaymar - Late Night Drinks (feat. 1oneam)
- 22 1oneam - Face Card (feat. Okaymar)
- 23 ohsxnta - Make It Work
- 24 1oneam - Hope You Know

## Teto

### 《Maior Que O Tempo》

EDITOR 강상주의



Released  
25. 3. 27.

1. NÃO PARE
2. BEM NOVIN
3. PRETTY LET GIRL (feat. WIU)
4. LEITE DERRAMADO
5. YES OR NO
6. TEMPORAL
7. OQQELESVAOFALAR?
8. PREVENDO A JOGADA
9. GRÉCIA
10. MULHER SECRETA (feat. Matuê, WIU)
11. MAIOR QUE O TEMPO

브라질 바이아 주 출신의 테토(teto)로부터, 어쩌면 푸에르토리코에서 Bad Bunny가 이뤘던 성취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리라. Bunny도 초기에는 트랩으로 이름을 알렸다. 근래 브라질에서의 트랩 스타라고 하면, 테토가 자국의 대표로 나서는 중이다. 특히 "Yes Or No"가 비록 스포티파이의 브라질 차트에 선전한 것으로만 그쳤으나, 곡에서 보여 줬던 그의 감각이라면 언젠가 북미 빌보드 입성도 어렵지 않을 듯하다. 곡이 수록된 <Maior Que O Tempo>는 트랩과 얼터너티브 알앤비 사이 어딘가에서 때로는 아프로비츠, 라틴 트랩, 레게톤 등 타국의 감성까지 한 테 섞어내며 그 감각을 부족함 없이 발휘한다. 그러나 그가 본작에서 진정 담아내고자 했던 것은 감각에 대한 과시보다 뿌리를 향한 축복이다. <X100PRE>보다는 덜 노골적이지만, 그럼에도 분명 그만의 현사를 보여주려 한 흔적이 돋보인다. 본질을 향한 그의 추구는 때로 그것을 표현하는 데의 한계에 일조하는 대중문화의 산업적 구조마저 비껴간다. 일단은 절충적인 단계에서 순조롭게 스타트를 끊었다.

# Lil Durk 《Deep Thoughts》

EDITOR moogsick

시카고의 Nipsey Hussle을 꿈꾸던 릴 더크(Lil Durk)에게 갑작스러운 수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오블락을 누비며 범죄를 저지르고 시카고 드릴을 선보였던 과거를 아는 이들에게 뉴스 자체는 그리 놀랍지 않았지만, 메인스트림에 올라온 이후 그의 시선이 사회 공헌 쪽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소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옥중 발매한 <Deep Thoughts>는 우리에게 익숙한 릴 더크 스타일의 반복이다. “Soul Bleed”, “Alhamdulillah”, “Deep Depression”에선 사과와 반성의 속내를 드러내고, “Monitoring Me”를 통해 적들에게 총을 겨누는 것도 잊지 않는다. 절친한 관계인 Lil Baby와 Future의 피쳐링도 여전하다. 다만 문제는 이 모두가 2020년대 내놓은 여러 음반의 마이너 카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느릿하게 침잠하는 “Can't Hide It”과 “Late Checkout”를 제외하고는 귀를 잡아끌 만한 구간이 부재한 탓이다. 팝 랩을 대거 차용하면서도 적재적소에 뱅어를 투입했던 <Almost Healed>와 비교했을 때 이와 같은 단점이 가장 두드러진다. 물론 정상적인 발표가 아니었음을 고려해야겠지만 여려모로 아쉬운 결과물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Released  
25. 3. 28.

- 1 Shaking When I Pray
- 2 Keep on Sippin'
- 3 They Want to Be You (feat. Future)
- 4 Soul Bleed
- 5 1000 Times (feat. Lil Baby)
- 6 Turn Up a Notch
- 7 Vanish Mode
- 8 Monitoring Me
- 9 Untouchable
- 10 Notebook (No Hook)
- 11 Can't Hide It (feat. Jhené Aiko)
- 12 Wonderin' Again
- 13 Late Checkout (feat. Hunxho)
- 14 Think You Glowed
- 15 Opportunist
- 16 Alhamdulilah
- 17 Deep Depression



Released  
25. 3. 31.

# Nine Vicious 《Tumblr Music》

EDITOR SONGCHICO

1. Margiela Steppin
2. Makaveli
3. Clout Demons
4. Sp5der
5. X and Instagram
6. Anti You
7. Mad Rappers
8. Hit Em Up
9. Beastmode
10. Again
11. Take Me Down

많은 우여곡절 끝에 사회로 돌아온 영 떡(Young Thug), 그의 이후 행보들에 당연히 많은 시선이 향했고, 이는 YSL(Young Stoner Life)의 대표 자리를 되찾은 후 처음으로 영입한 아티스트 나인 비셔스(Nine Vicious)에게도 자연스레 큰 주목을 안겨주었다.. “No More Parties in L.A.”, “Kelly K” 등 유명 트랙들을 샘플링한 사운드를 바탕으로 애틀랜타에서 물려받은 전통적인 플로우를 녹여내던 그가 ‘뉴-YSL’을 이끌 것으로 예상되었다. 게다가 나인 비셔스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범죄 의혹이 제기되자 본작은 생각보다 많은 것이 걸려있는 작품이 되었다. 아쉽게도 이 수준으로는 YSL을 이끌고 범죄 의혹으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일부 트랙에선 나인 비셔스의 고유한 횡기한 트랩 사운드가 두드러졌지만, 그 외에 트랙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자신의 수장인 영 떡, Playboi Carti, Ken Carson 등 여러 애틀랜타 래퍼를 모방하기 바쁜 플로우는 피로감이 강했으며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해 “내가 흥분해서 망쳐버렸어”라고 한 대목은 당황스러움을 자아냈다. 결국 자신의 강점을 일부 드러내긴 했으나, 전반적으로는 YSL 내 다른 아티스트인 1300SAINT와 Yung Kayo에 비해 부족함이 뚜렷했다. 이미 한 차례 ‘고점’을 보여준 아티스트이기에 회복을 기대해 볼 여지는 있지만, 중요한 시점에 발매한 첫 정규 앨범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 Will Smith

## 《Based On A Tru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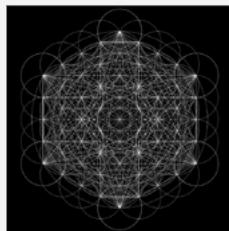
EDITOR 차카

사실 월 스미스(Will Smith)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Chris Rock의 따귀를 때린 사건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었다. Kanye West의 VMA 난입 사건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도 아니었고, Jay-Z가 Solange에게 엘리베이터에서 폭행당한 영상만큼 흥미롭지도 않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전 세계의 매스컴과 커뮤니티는 본 사건을 과도하게 해석하며 월 스미스를 2022년 최고 화제의 인물로 만들었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은 밈과 조롱거리로 소비되고 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월 스미스는 20년 만의 정규 앨범 <Based On A True Story>에서 이 반응들을 유머나 자기반성의 소재로 삼기보다, 인생을 뒤흔든 하나의 시련처럼 받아들이고 말았다. 본작은 상담실에서 들을 법한 자기 계발 문장과 유치한 쇼튠풍 프로덕션 / 또 막연한 투쟁의 서사들로 가득하며, 그중에서도 "Rave In The Wasteland", "You Can Make It" 같은 곡들은 종교적 이미지와 피상적인 회복 서사만 반복한다. 앨범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은 "You Lookin' For Me?"의 불안정한 내면만이 부각되는 자기방어적인 가사이다. 왜 이 앨범이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력은 끝내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Based On A True Story>는 한때의 해프닝일 뿐이었던 사건을 굳이 비극으로 만들어버린 형편없는 감정극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Released  
25. 3. 28.

- 1 Int. Barbershop – Day (feat. DJ Jazzy Jeff & B. Simone)
- 2 You Lookin' for Me?
- 3 The Reverend (Rave Sermon)
- 4 Rave in the Wasteland
- 5 Bulletproof (feat. Jac Ross)
- 6 Hard Times (Smile) (feat. Teyana Taylor)
- 7 Beautiful Scars (with Big Sean, feat. OBanga)
- 8 Tantrum (feat. Joyner Lucas)
- 9 First Love (with India Martinez & Marcin)
- 10 Make It Look Easy
- 11 The Reverend (YCMI Sermon)
- 12 You Can Make It (with Friday & Sunday Service Choir)
- 13 Work of Art (with Russ, feat. Jaden)
- 14 The Reverend (WOA Sermon)



Released  
25. 4. 4.

- 1 beginning
- 2 flash
- 3 cope
- 4 you
- 5 tell me
- 6 destroy me
- 7 burn
- 8 girl
- 9 dream rain sports
- 10 nice
- 11 nerve
- 12 ego
- 13 sidekick
- 14 eldest child
- 15 safe

# 2hollis

## 《star》

EDITOR blvckmvttter

우리의 밤하늘에 떠있는 별빛은, 이미 몇 광년 전 죽어버린 별의 흔적이라고 한다. 어쩌면 가장 밝고 빠르게 타오르는 별빛은 그 찬란함과 동시에 최후가 가까워졌음을 함께 알려오는 걸지도 모르겠다. 2024년의 초신성 2hollis (투홀리스)는 정규 4집 <star>를 통해 커리어의 정점을 찍음과 동시에, 완만하게 기울어져가는 성장 곡선을 무심코 내비친다. 투홀리스의 음악이 띠는 자력은 어디서 기원한 것이었나. 순간의 강렬한 폭발이 만들어낸 중력에 이끌리는 부유물들은 항상 더 강한 중력에 이끌리기 마련이다. 세태의 혼란에 떠돌던 어린 리스너들은 투홀리스의 폭발력에 이끌렸다. 그 별의 가치에 매료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star>는 더 이상 폭발하지 않는, 완전히 소진되어버린 별이다. 신세대의 표상은 그 상징성과 추종이 가지는 무게감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적 자아의 성취를 우선하기로 한 듯하다. 그러나, 작품의 서사가 아티스트의 매력을 반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면 그 필요성은 어디에 있나? 폭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별은 그 구성 물질만으로 밝게 빛을 낼 수 있는가?



Released  
25. 4. 12.

- 1 Sucker Free City
- 2 Mandingo
- 3 Roar of the Lion (The Lion's Pit)
- 4 Claudine
- 5 Shaolin Vs. Lama
- 6 Executioners from Shaolin
- 7 Cleopatra Jones
- 8 Warriors Two, Cooley High
- 9 Let's Do It Again
- 10 Dolemite
- 11 Trouble Man (Outro)
- 12 Charleston Blue, Legend Of A Fighter

## Wu-Tang Clan 《Black Samson, The Bastard Swords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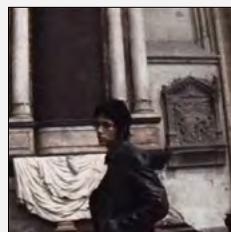
EDITOR ryuzimoto

서늘한 칼끝이 교차하는 무림의 시대, 과거의 최전성기를 지나 보낸 절정의 고수들이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 검을 뽑는다. 이제 신세대의 중심 조류에서 조금 벗어난 그들이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중후하면서도 강렬하다. 90년대부터 지금까지 격랑을 겪어도 여전히 강호를 지키고 있는 우탱 클랜(Wu-Tang Clan)의 <Black Samson, The Bastard Swordsman>, 이것은 여러 술법을 한대 빚어낸 현대판 무협 서사시이다. 과거 함께 전장을 누볐지만, 이미 떠난 자들을 인트로에서 기리며 서사는 시작된다. 앨범의 총괄 프로듀서인 Mathematics의 판 짜기는 다음은 비급처럼 정교하고도 유연하다. 붓으로 그려낸 비트는 수묵화처럼 번지고, 드럼 라인은 전투의 고동처럼 심장을 울린다. 고전 무협 영화를 바탕으로 한 컨셉과 샘플링에 이번에는 약간의 세련미를 더했다. 이는 여전히 매니악한 쾌감을 준다. 그 위에 Method Man과 Raekwon은 묵직한 언월도를 휘두르고 GZA는 킬러비와 같은 창을 찌른다. 이처럼 각 멤버들은 격전지에서 각자의 무공을 개성 있게 뽐어낸다.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고 완벽하지는 않다. 또 피를 조금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높은 하늘에서 이를 바라보라, 우탱 클랜은 그들이 위치한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을 관통하는 한 편의 장쾌한 호투를 보여주지 않나.

## Kai Angel 《ANGEL MAY CRY 2》

EDITOR SONGCHICO

본인과 같은 타투를 한 사나이 9MICE와 함께 컬렉티브 ‘Viperr’를 결성한 뒤, 러시안 레이지의 저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던 카이 엔젤(Kai Angel)이 솔로 EP로 돌아왔다. 본작은 성공사례로 남은 <Angel May Cry>의 연작으로, 그 자체로 그의 야심을 엿볼 수 있다. 전작이 대부분 레이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본작 역시 그 연장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카이 엔젤은 오프닝 트랙 “john galliano”에서부터 그 기대를 통쾌하게 깨뜨린다. 본작의 분위기를 가장 뚜렷하게 대변하는 트랙은 “metallica”다. 저음에서 울리는 묵직한 베이스와 불규칙한 드럼 패턴은 팬들이 흔히 ‘고딕하다’고 표현하는 Viperr 특유의 어둡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카이 엔젤은 애틀랜타 래퍼들처럼 유려하게 발음을 흘려낸다. 새빨간 레이지 사운드가 자취를 감춘 자리에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그리고 앨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white Ferrari”는 그의 야심이 현실로 구현된 순간이다. 러시아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플로우를 이어가는 그의 퍼포먼스는 단연 커리어 하이라 할 만하다. Viperr의 세 번째 합작 앨범과 월드투어, 그리고 솔로 앨범 <Immortal>을 앞둔 카이 엔젤은 커리어의 전환점이자 최대의 Hype에 도달한 시점에서, “이걸 5분 만에 만들었어. 이게 내 스킬이지”라며 너무나도 쉽게 실험에 성공해 보인다. 그런 그에게 ‘러시안 Playboi Carti’라는 칭호는 이제 과분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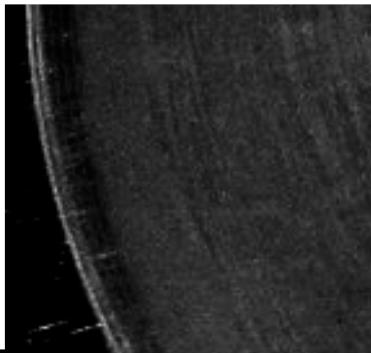


Released  
25. 4. 18.

- 1 john galliano
- 2 millions
- 3 i hate fashion shows
- 4 metallica
- 5 laperouse
- 6 aimed u up
- 7 white ferrari



FULL, Full-length



- 
- 1 Backxwash  
《Only Dust Remains》
- 2 Ken Carson  
《More Chaos》
- 3 Blu & August Fanon  
《Forty》
- 4 Chy Cartier  
《No Bring Ins》
- 5 Jane Remover  
《Revengesekerz》
- 6 Skrillex  
《F\*CK U SKRILLEX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3>》



tavernetour,  
@backxwash

# Backxwash 《Only Dust Remai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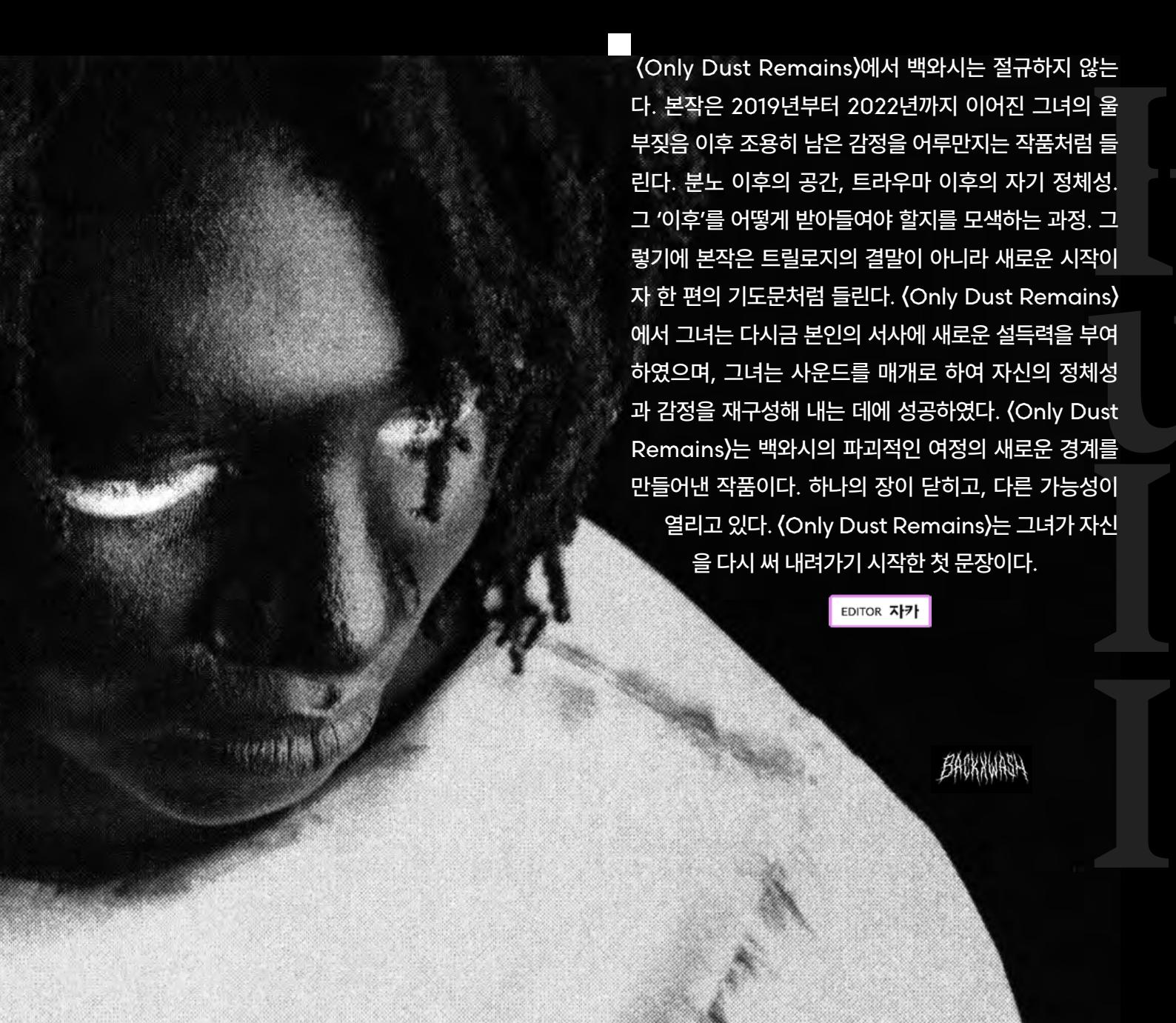
1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이어진 백와시(Backwash)의 강렬한 트릴로지는 단숨에 그녀를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의 총아로써 주목받게 하기에 충분했다. 종교, 트라우마, 혹은 퀴어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무거운 주제를 호러코어(Horrorcore)와 인더스트리얼의 기괴한 질감으로 표현하며, 그녀는 고통을 무기 삼아 자기 파괴와 자아 확장의 경계에서 사운드를 디자인했다. 그녀의 전작 〈His Happiness Shall Come First Even Though We Are All Suffering〉의 마지막 트랙 "MUKAZI"에서 백와시는 아름다운 현악과 소울 샘플의 사운드 속에서 부드럽고 연약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마침내, 어둡고 칙칙했던 트릴로지의 끝자락에서 무거운 구름이 걷히며 그녀의 새로운 잠재력과 펼쳐지지 않은 다면성을 엿볼 수 있었던 것이다. "MUKAZI"는 그녀에게 있어 일종의 인생 회고록과도 같은 상징적인 트랙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네 가사를 듣고 널 동경해 / 난 어리고 우울했지만 여전히 배고팠어 / 이젠 내 삶에도 의미가 생긴 것 같아 / 내 친구들과 내 형, 내 사랑 Chachi, 그리고 나를 키운 동네에게 고마워, 이건 작별 인사야'. 곡의 화자가 '너'에서 '나'로 확대되며 짙은 감정적인 연출을 보여준 본 트랙은 그녀의 새로운 앨범 〈Only Dust Remains〉가 어떤 작품으로 귀결될지에 관한 일말의 단서를 제공한 듯 보인다. 그렇게, 〈Only Dust Remains〉는 그녀의 변곡점과도 같은 앨범으로 탄생되었다. 〈Only Dust Remains〉는 백와시가 그녀의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여백과 침묵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작품이다. 여전히 그녀의 세상에 대한 분노는 존재하고, 학교, 가정, 종교와 같은 제도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는지를 향한 비판도 여전하나 그 비판은 더 이상 폭발하듯이 격하게 분출되지 않는다.



〈Only Dust Remains〉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건 일종의 체념, 혹은 말 없는 수용에 가까운 감정이다. "Black Lazarus"는 그러한 그녀의 태도가 단적으로 나타나는 트랙이다. 반복되는 후렴과 묵직한 신스 사운드 위에 얹힌 백와시의 둔탁한 목소리는 상실의 반향처럼 들린다. 백와시는 이제 누군가를 향해 고함치기보단, 먼지바람 아래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하다. "Black Lazarus"는 그 새로운 궤도의 첫 문장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진실을 꺼내든 고백문이다. 이후의 트랙들—"Wake Up"이나 "DISSOCIATION"—에서도 여전히 자기 파괴와 중독, 소외에 관해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무력감, 혹은 자기 연민이 담겨 있다. 사운드는 전보다 덜 거칠고, 더 섬세해졌으며, 그 일례로 "Undesirable"과 같은 곡에서는 현악기 편곡과 팝적인 멜로디가 오히려 고통의 메시지를 더 날카롭게 전달한다. 강렬한 전자음의 "9th Heaven"과 사운드적으로 새로운 영역을 탐구하려는 그녀의 의지가 돋보이는 앰비언트 풍의 트랙 "9th Gate"와 같은 곡들에서 그러한 변화가 두드러진다. 앨범의 마지막에서 그녀는 '나는 목사도, 천국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외부의 구원 대신 자기 내면의 본능을 붙잡는다. 그리고 Nina Simone의 육성—"내가 바라는 건 항상 완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순간, 〈Only Dust Remains〉와 백와시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명확해진다.





〈Only Dust Remains〉에서 백와시는 절규하지 않는다. 본작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그녀의 울부짖음 이후 조용히 남은 감정을 어루만지는 작품처럼 들린다. 분노 이후의 공간, 트라우마 이후의 자기 정체성. 그 ‘이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색하는 과정. 그렇기에 본작은 트릴로지의 결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자 한 편의 기도문처럼 들린다. 〈Only Dust Remains〉에서 그녀는 다시금 본인의 서사에 새로운 설득력을 부여하였으며, 그녀는 사운드를 매개로 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감정을 재구성해 내는 데에 성공하였다. 〈Only Dust Remains〉는 백와시의 파괴적인 여정의 새로운 경계를 만들어낸 작품이다. 하나의 장이 닫히고,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Only Dust Remains〉는 그녀가 자신을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한 첫 문장이다.

EDITOR 자카

BACKXWASH



## Only Dust Remains by Backxwash

Released March 28, 2025

- 1 Black Lazarus
- 2 WAKE UP
- 3 Undesirable
- 4 9th Gate
- 5 9th Heaven
- 6 DISSOCIATION (feat. Chloe Hotline)
- 7 History of Violence
- 8 Stairway to Heaven (feat. Ora Cogan)
- 9 Love After Death
- 10 Only Dust Remains (feat. pet wife, Magella, Fernie and Morgan Paige)



FUCK U SKRILLEX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2

S k r i l l e x

스크릴렉스(Skrillex)라는 이름, 그리고 “Bangarang”이라는 곡을 처음 접했던 순간은 아마 10대 시절, ‘콜 오브 듀티’에 폭 빠져 살던 우리들이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며였을 것이다. 충격적인 게임 플레이보다도 더 강렬하게 감각을 사로잡은 것은 오히려 비지엠으로 깔린 그 날카로운 신스와 갑작스레 휘몰아치는 전개, 귀를 내 려앉히는 듯한 베이스 드롭이었다. 당시 우리가 알던 팝 음악과는 전혀 다른, 낯선 언어였다. 이 곡은 대중적 성공과 함께 곧장 ‘딥스텝’이라는 장르 자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알게 되었다. 우리가 흥분하며 받아들였던, 혹은 미처럼 소비했던 그 폭발적인 전자음악은, 사실 ‘딥스텝’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딥스텝의 기원은 Burial의 교과서적인 앨범 \*〈Untrue〉\*처럼 고독하고 음울한 사운드에 가까웠다. James Blake, Mount Kimbie 등의 아티스트들을 거치며 타 장르와의 결합을 통해 감성적이고 실험적인 방향으로 확장될지언정, 라디오 팝에 반하는 ‘안티팝’의 정서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중심에는 도시의 공허함과 내면의 불안 같은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는 장르를 이루는 정체성으로 작용했다.

이처럼 덥스텝은 사운드뿐 아니라 그 문화를 형성한 인물들의 태도와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었다. 덥스텝의 초상은 대체로 소극적이고 은둔적인 천재의 이미지였다. 클럽의 어두운 구석에서 내밀한 실험을 이어가던 그들과 달리, 스크릴렉스는 자신이 만든 음악을 무대 위에서 직접 전하며 페스티벌, 클럽, 레이브의 중심에 섰다. 고개를 숙인 채 미세한 소리를 조율하던 전통적인 이미지의 아티스트에서 벗어나, 그는 대중성과 적극적인 무대 매너로 스타 DJ의 전형을 새로 썼다. Justin Bieber, Diplo, GD와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히트곡들을 쏟아내며 스크릴렉스는 덥스텝의 얼굴이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동시에 “덥스텝이 가장 싫어하는 사나이”라는 낙인을 떠안게 되었다.

그러나 시간은 흐르고, 2010년대 후반의 차트는 더 이상 팝스타들이 아닌, 흑인 랩스타들과 사운드클라우드 래퍼들이 주도하기 시작했다. 음악계의 중심축이 조용히 옮겨지는 동안 스크릴렉스는 여전히 어딘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었지만, 그를 불러세우던 거대 페스티벌들의 러브콜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그 자신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탓일지도 모른다. 덥스텝이라는 어름과 동의 어가 된 순간, 그는 동시에 그것과 함께 ‘과거’가 되어버렸다. ‘덥스텝’이 유행어가 아닌 유물이 된 지금, 그는 원초적 씬에서도, 대중적인 플레이리스트에서도 자취를 감춘 존재였다.



그래서 2023년, 전혀 예고 없이 두 장의 정규 앨범 〈Don't Get Too Close〉와 〈Quest for Fire〉를 단 4 일 간격으로 공개했을 때, 대중이 놀란 이유는 단지 그 속도감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성기 시절의 상징이었던 긴 생머리와 뿔테 안경은 사라졌고, 낯설 만큼 성숙한 인상의 수염을 기른 남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한 시대를 수놓았던 'emo 키드'의 자리는 이제 어딘가 성숙해진 어른의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달라진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었다. 〈Quest for Fire〉에 담긴 음악은 과거의 덥스텝과 힙합 사이 어딘가, 그 모호한 경계에서 새로운 접점을 찾아냈다. 그가 한동안 떠나 있었던 것이 무색할 만큼, 음반은 다시금 그를 중심으로 대중의 시선을 불러 모았다. 전자음악 마니아층은 그 안에서 덥스텝 본연의 질감을 발견했고, 대중은 이들은 정체되어 있던 힙합의 공기를 환기하는 전자적 감각에 감탄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번 시대를 틀어쥐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장을 뒤로한 채 활동이 마무리될 즈음, 모두가 기대했다: 어른이 된 스크릴렉스는 과연 어디로 향할까?

ECKI REVOLUTION INDIA DITI NOTIZI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그렇게 지난 4월 1일, 그는 또 한 번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정규 4집을 공개했다. 그 제목은 만우절에 어울리는 장난 같은 문장, 〈Fuck U Skrillex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3〉. 그의 스튜디오 외벽에 낙서 된 이 한 줄의 메시지를 앨범명으로 그대로 가져온 그는, 예술가인 척하는 연예인이라며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들인다. 그 도발에 대한 그의 대답은 의외로 소박하고 명확했다: ‘너희가 가장 구리다고 말한 시절로 돌아가, 가장 짜는 작품을 만들어줄게.’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EDM 씬의 ‘팝스타’의 귀환이였다.

총 34곡에 달하는 이 작품은 앨범이라기보다, 참여진 중 하나인 DJ Smokey가 호스팅하는 일종의 믹스셋에 가깝게 구성되어 있다. 곡과 곡 사이의 트랜지션은 지나치게 매끄러워, 트랙리스트를 보지 않으면 언제 노래가 넘어갔는지도 모를 정도고, 트랙 내부에서도 서사 없이 급격한 전개 변화가 반복된다. 이는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그의 전성기 스타일에 대한 재연습이자 해체로 읽힌다. 여기에 그의 초기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던 ‘보컬 코멘터리’가 다수 삽입되며, 과거의 자신을 모방하거나 풍자하는 듯한 나레이션이 흐른다. “스크릴렉스는 죽었다”, “또 Virtual Riot이랑의 합작이야? 지겹다 이젠”, “이 노래를 만들려고 내 영혼을 팔았어” — 익명의 댓글들, 유튜브의 조롱, 팬의 배신. 그는 그것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스스로를 조롱하듯, 그대로 음반에 새긴다.

그리고 이 회고의 정점에는 2011년 밀라노에서 도둑맞은 그의 하드드라이브 속, 시간에 봉인되어 있던 곡들이 있다. 이 앨범은 단지 과거를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거 그 자체를 꺼내 온다. 그중에서도 앨범 끝부분에 배치된 “Voltage”는 특별하다. 한참 전의 곡임에도 이 신작의 마무리를 담당하는 이 트랙은, 당시의 그가 품고 있던 과잉된 감정과 짙은 폭발력, 무엇보다 순수한 열망을 그대로 품은 채 등장한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마주하는 주체는 변해버린 현재의 그다. “Voltage”는 과거의 자기 자신을 떠나보내는 의식처럼 들린다. 화려하고 시끄럽지만, 어쩐지 슬픈 휘몰아침. 그것은 스크릴렉스가 음악이라는 시간 속에서 얼마나 멀리 돌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조용하고 진심 어린 작별 인사였다.

대중적 성공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누구보다 음악에 진심인 그의 실력. 이 진심이 만든 뚜렷한 정체성은 오히려 그를 어느 장르에도 완벽히 섞이지 못하는 이질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앨범을 통해 스크릴렉스는 말한다. 자신은 그 누구의 규정에도, 어떤 규격에도 갇히지 않겠노라고. 그 '누구'가 자신의 유통사이자 소속사였던 아틀란틱 레코즈일지라도. 실제로 이번 앨범을 끝으로 계약이 종료된 그는, 이제 공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다. 올해로 서른 일곱, 더 이상 그에게 아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다.

하지만 굳이 누가 그를 변호할 필요가 있을까? 스크릴렉스는 단 한 번도 팬들의 환호에도, 마니아들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방식대로 음악을 만들어 왔고, 조롱이든 회고든, 15년 된 미발표곡이든, 결국엔 자신보다 뛰어난 프로듀서는 없음을 입증해 냈다.



자신만의 개성으로 빚어낸 음악을 통해 '예술'을 대중화 시킨 인물. 스크릴렉스는 결국 하나의 장르이자 언어다. 생각해 보면, 앤디 워홀 역시 콧대 높은 예술계 문지기들에 의해 외면받던 예술에 시장성을 불어넣은 존재였다. 그렇기에 그의 벽에 '너는 워홀이 아니야'라 적었다는 작자에게 나는 되묻고 싶다: 스크릴렉스는 정말 워홀이 될 수 없는가?

EDITOR denim





## F\*CK U SKRILLEX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3 by Skrillex

Released April 1, 2025

- 1 SKRILLEX IS DEAD (feat. DJ Smokey)
- 2 SPITFIRE (feat. Hawaii Slim)
- 3 WHILE YOU WERE SLEEPING VIP  
(feat. Virtual Riot & Nakeesha)
- 4 SLICKMAN
- 5 TEARS LOST DROP (feat. Sleepnet & Joker)
- 6 THINGS I PROMISED
- 7 RECOVERY (feat. Space Laces)
- 8 ANDY
- 9 SQUISHY CLIP
- 10 LOOK AT YOU (feat. Jónsi)
- 11 GULAB XX (feat. Naisha)
- 12 MOMENTUM (feat. Zacari, Starrah & Ilykimchi)
- 13 ANIMALS BEAT (feat. Team EZY)
- 14 MIRCHI TEST (feat. Virtual Riot & Nakeesha)
- 15 HOLD ON
- 16 SEE YOU AGAIN VIP (feat. Swedm® & LOAM)
- 17 MORJA KAIJU VIP
- 18 KORABU  
(feat. Bgirl, Parisi, Varg2™, Whitearmor, Eurohead & Jamesjamesjames)
- 19 REDLINE DASH
- 20 ZEET NOIZE (feat. Boys Noize & Dylan Brady)
- 21 BOOSTER (feat. Dylan Brady)
- 22 FRICKY VIP
- 23 ULTRA INTRO (feat. LH4L)
- 24 JUNGUNDRA
- 25 DRUIDS (feat. G Jones)
- 26 BIGGY BAP (feat. Wuki)
- 27 SAY GOODBYE (feat. Njomza & Swedm®)
- 28 MOSQUITOTOUILLE
- 29 BABY ROYAL (feat. Swedm®)
- 30 G2G (feat. Swedm® & Badriia)
- 31 DNB TING (feat. Majestic)
- 32 SAN DIEGO VIP
- 33 VOLTAGE
- 34 AZASU (feat. Swedm®)



3

**Jane Remover**  
**«Revengeseeker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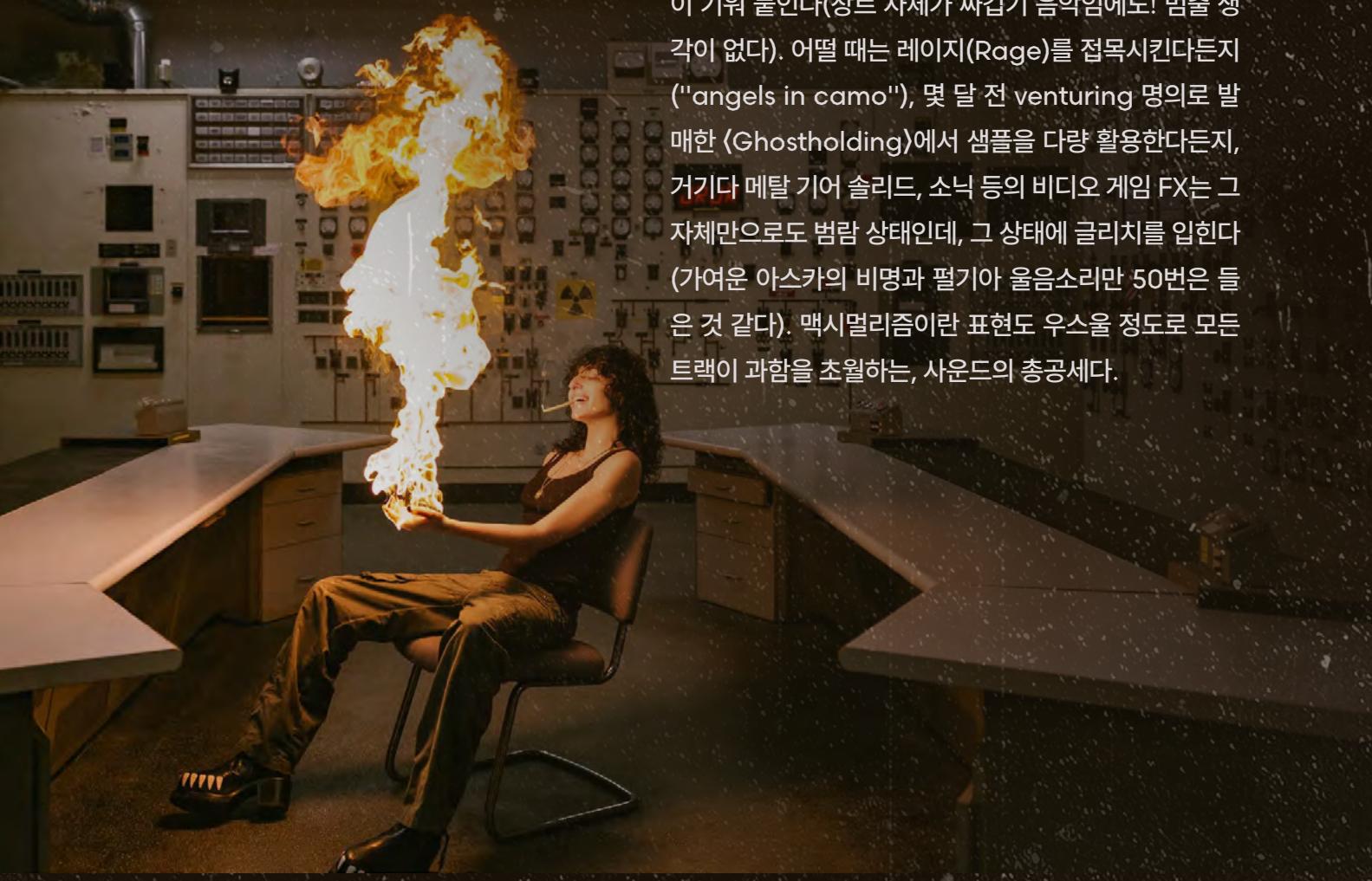


dltzk, leroy, venturing를 거쳐 제인 리무버(Jane Remover)에 이르기까지. 2020년부터 그녀가 보여준 수많은 페르소나와 장르 소화력이 〈Revengeseekerz〉로 산화되기까지 - 대체 무엇이 그녀를 '복수를 추구하는 이'로 거듭나게 만들었을까? 디지코어(Digicore), 글리치 트랩(Glitch Trap), 슈게이즈(Shoegaze) 등 인터넷 서브컬처 기반의 장르들을 한데 규합하여, 뜨겁게 표출하는 본작은 - 매시업(Mashup), 즉, 제인 리무버 디스코그래피를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의미의 다리아코어 (Dariacore)로 느껴진다. 그리고 이번의 혼돈은 선회를 거부하며, 외부·불특정한 타인을 향해 뻗어나간다.



자기 연민과 내면의 취약함에 젖어, 부서질 듯한 강렬함을 소리 없이 아우성치던 이전 작들을 살펴보자. dlitzk 시절 몰아붙인 〈Teen Week〉 폭풍의 중심부에는 17세 소년(커밍아웃 전)의 정체성 혼란과 외로움이 날카롭게 다가왔다. 1년도 지나지 않아 발매된 첫 정규 〈Frailty〉에서는 그 소외감이 지저분한 방식으로 극대화되어 글리치와 노이즈를 덕지덕지 붙인 채 제시된다. 그녀의 모든 페르소나를 합친 디스코그래피 중에서도 유독 이질적인 〈Census Designated〉에서는 모종의 불안감이 뿌옇게 처리된 채 내면을 빙빙 돈다. 기타를 들고, 느릿느릿하게. 하지만 본작에서 제인 리무버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에서 탈피한다. 이제 그녀는 과열된 스테이지의 믹스셋 디자이너이자, 완벽한 설계자이다.

□ 〈Revengeseekerz〉의 가장 유사한 페르소나는 leroy다. 작법과 트랙 간의 흐름 · 배치까지 해당 명의로 발매한 〈dariacore〉 시리즈, 〈Grave Robbing〉과 굉장히 흡사하며, "TURN UP OR DIE"와 같은 트랙은 보컬만 자신으로 대체됐을 뿐 누가 봐도 다리아코어 장르 그 자체다. 하지만 그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 늘 찍어내던 다리아코어에서 자신이 동경하던 인터넷 문화를 미친 듯이 기워 붙인다(장르 자체가 짜깁기 음악임에도! 멈출 생각이 없다). 어떨 때는 레이지(Rage)를 접목시킨다든지 ("angels in camo"), 몇 달 전 venturing 명의로 발매한 〈Ghostholding〉에서 샘플을 다양 활용한다든지, 거기다 메탈 기어 솔리드, 소닉 등의 비디오 게임 FX는 그 자체만으로도 범람 상태인데, 그 상태에 글리치를 입힌다 (가여운 아스카의 비명과 펄기아 울음소리만 50번은 들은 것 같다). 맥시멀리즘이란 표현도 우스울 정도로 모든 트랙이 과함을 초월하는, 사운드의 총공세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Revengeseekerz)*의 모든 조각 모음집은 번잡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한계 까지 몰아붙였기보다, 오히려 재조합의 정점에 도달한 인상이다. 이는 몇 년에 걸쳐 완성된 제인 리무버의 탁월한 전자음 손질 실력 탓도 있었겠지만, 모든 트랙의 방향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오로지 한 목표만을 향해 전진하기에 - 외려 단순함의 극치를 달리기 때문이다.

'And I do whatever the fuck, cause I've been on whatever the fuck(난 내 죽대로 해, 여태껏 그래 왔으니까)' 돌려 말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머니, 섹스, 파워'. 자신이 이 클럽에서 가장 나쁜 년임을 강조하며 끊임 없이 혼란을 유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리아코어와의 유사성이 다시 한번 상기된다. '죽을 때까지 춤춰라!'



〈SCARING THE HOES〉 이후로 높은 피처링 타율을 이어나가고 있는 Danny Brown의 활약 역시 흥미로운데, "Psychoboost"에서도 가히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다. 이 정신 나간 트랙 위에서 - 등장할 때마다 외치는 Danny Brown의 'Check!'는 트랙을 가장 공격적이면서도 인더스트리얼한 디스토션 비트로 빗어나가는데 일조한다. 또 다른 하이라이트, "Experimental Skin"은 포스트-디지코어라는 이명이 붙어도 될 정도로 서서히 살을 붙이고, 후반부 댄스 빌드업을 위해 착실하게 그 틀을 유지한다. 상대적으로 가장 팝스러운 트랙 "Dancing with your eyes closed"는 마치 클럽이 일종의 도피처인 듯, 따뜻하고 키치한 멜로디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제인 리무버의 파티에 유입시킨다. 모든 트랙이 킬링 트랙이지만, 파티 후반부는 막바지라 다소 물리는 감이 있다. 특히 "JRJRJR"은 제인 리무버라는 예명을 언제든 버릴 수 있다 엄포하며 계속된 변화를 선언하지만 - 곡 자체가 개성이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질뿐더러, 클로저로는 적합하지 않게 느껴졌다.



하지만 소소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Revengeseekerz〉는 그녀의 최고작이라 불리기에 손색없다. 그녀의 디스코그래피를 감상할 때마다 항상 어딘가 꽉 막힌 기분을 떨쳐 낼 수 없었다.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머뭇거리던 제인 리무버의 모든 페르소나와 재능이 단점을 모두 제한 채 성공적으로 한데 집약되어 솟구쳐나가는 것일 테다. 그녀의 오랜 팬들과 17세 소년 dlitzk 시절부터 그녀의 음악을 접했던 이들에게는 〈Revengeseekerz〉가 주는 감회가 새로울뿐더러, 굉장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전자음의 폭풍 속에서, 좀체 섞이지 못했던 그녀는 - 이제 그 중심이 되어 모두를 휩쓸고 다닌다.

EDITOR: SRUIK SAN





Released April 4, 2025



**Revengeseekerz**  
by Jane Remover

- 1 TWICE REMOVED
- 2 Psychoboots (feat. Danny Brown)
- 3 Star people
- 4 Experimental Skin
- 5 angels in camo
- 6 Dreamflasher
- 7 TURN UP OR DIE
- 8 Dancing with your eyes closed
- 9 Fadeoutz
- 10 Professional Vengeance
- 11 Dark night castle
- 12 JRJRJR

# **Chy Cartier**

## **«No Bring Ins»**



빌어먹을 랩을 너무 잘한다. 일단 이 말로 서문을 열어야겠다. 이를테면 아메리칸 갓 탤런트에 출연해 화제를 일으키기도 한 어린 랩 영재가 그대로 자라서 순수 퍼포먼스와 절정의 폼으로 온갖 미디어를 점령 중인, 그런 괴물을 보고 있는 것만 같다. 물론 차이 카르티에(Chy Cartier)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없으며, 그녀는 아메리칸이 아니라 브리티시다. 그래서 감회가 더 욱 남다르다. 특유의 발음과 카리스마로 혀를 내두를 만큼 타이트한 랩을 자랑하는 재능꾼들이 유독 많은 UK 힙합 씬 내에서도, 이제 막 첫 데뷔 믹스테입을 발표한 그녀를 벌써부터 열 손가락 안에 뽑을 수 있으리라 자신한다. 서구권 전체로 넓혀 보면 오히려 신인일수록 비중이 적어지는 정통파 퍼포머의 실황에 대해 호흡곤란 수준의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참이다. 그녀는 걸어 다니는 자동 재세동기가 돼, 우리에게 찾아와 가슴 깊이 잊고 있던 충격을 가하며 쾌감을 되살리고 있다.

나의 호들갑은 "Show Me Love Freestyle"로부터 시작된다. 피치 업된 Robin S의 옛 하우스 샘플 위에 약간의 스크래치와 햇이 가벼운 기대감을 부추기다가, 벌스가 시작되지마자 곧바로 나를 정신없이 두들겨 팬다. '타임'을 외칠 틈조차 일절 주지 않는 그녀가 미울 만큼 무자비하다. 뚜렷한 톤과 강한 악센트는 기본 장착이다. 여백의 미학 따윈 개나 쥐 버린 라임 배치와 속도감 등에선, 글로브도 안 낀 채 상대를 피멍 범벅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영락없이 보인다. 이러한 독기는 비장하면서도 감성적인 피아노 루프가 특징인 "BOSSED UP"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분출이 진중하고 컨셔스한 메시지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지만, 다소 유감스럽게도 본 싱글이 화제가 된 이유는 독특한 박자와 악센트로 인해 일종의 맘이 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 역시 인상적인 테크닉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다.

그녀의 퍼포먼스는 밀리언 달러 베이비의 매기처럼 밑바닥에서부터 고도의 '훈련'으로 갈고닦아 완성한 피땀의 산물이자 그녀만의 체급이다. 그중 체급이란 (나름대로 말장난을 의도한 표현대로) 드릴/그라임에 최적화돼 있음을 말한다. 여러 곳에서 직접 밝힌 일명 '어둡고 강렬한 베이스로 정의되는 사운드'를 향한 추구 역시, 지극히 영국스러운 방식으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녀의 의성어적 맹공 (onomatopoeic blitz; 비평가 Olivier Lafontant의 말을 빌림)은 변칙적인 드럼 패턴과 위협적인 베이스와 만날 때 훨씬 강해진다. <NO BRING INS>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낸다.



프로듀서 Bkay와 그녀는 작업 초기에 본작을 'The Bounce' 프로젝트로 칭하기도 했다. 별도의 명명 때문에 완전히 이질적인 방향성을 실험할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결과물은 그간 일관되게 연마해 온 자신의 미학과 비전을 위해 더 집요한 접근과 응집을 꾀한 것임을 일러주고 있다. 즉 정수를 보여주고자 했다. 여러 선공개 싱글— "Yo", "SHUSH", "NOT THE ONE", "DIFFERENT KETTLE"—로부터 그 의도가 더욱 명확히 보인다. Skepta, Headie One, 그리고 초기 에라의 K Trap 등으로 말미암은 본고장 레전드들의 영향을 계승해 더욱 해비하고 하드코어한 드릴 뮤직을 구현했다. 랩뿐만 아니라 밤거리나 공장을 주무대로 하며 서늘한 톤을 입힌 미니멀리즘의 비디오 연출과 무채색의 패딩이 주가 되는 의상 등, 각각도에서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앨범 아트워크에서는 여왕개미처럼 더욱 화려한 비주얼의 그녀가 보이지만 역시나 장르를 상징하는 다크함으로 무장했다.

랩은 역시나 타이트하다. 브래거도시오에는 로드 랩에 기반한 위협이 도사린다. 총기와 관련된 시그니처 애드립 (Bap! Bap! Bap! Bap!)에 Rrrr—Rrrr!가 추가된 것처럼 호전성에 관해 더욱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여기에는 더욱 치밀한 연구가 돋보인다. 정통파답게 그녀에게 랩이란 기본기에 대한 탄탄한 이론과 근면한 연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령 라임 패턴에 관한 다소 도식적인 접근도 서슴지 않던 시절도 있었다. 학습의 경험을 좋은 밀거름으로 삼았기에 이미 충분히 능통한 테크니션이 됐음에도, 이를 완성형이라고 생각지 않은 것일까. "YO"에서는 초창기 Playboi Carti 가 떠오를 정도로 요란한 애드립과 특정 단어의 짧은 반복과 항당함을 풍기는 일부 라인 등으로 하여금, 단단한 테크닉을 어떻게 유연한 재치에 옮길 수 있을지 신경을 썼다. "LOCKED IN"에서는 의식의 흐름 기법과 정교한 긴장감 사이의 경계를 눈금 단위로 재보는 듯하다. 반대로 "REAL BOSS CHICK", "DIFFERENT KETTLE" 등에서는 랩의 타이트함이 어떻게 더욱 폭력적이고 오싹하게 들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 중점을 뒀다.

한편, 그녀의 비전은 "SN"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슈퍼스타에도 향해 있다. 그렇다고 Sexy Redd나 Ice Spice처럼 성 자유주의적인 쇼맨십과 바이럴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는 뜻은 아니다. 다소 투박하고 진지한 스타일로도 나름 다채로운 웰메이드 팝 앨범을 만들려고 했다. 자기성찰이나 로맨스를 테마로 한 중반부 이후 곡들이 유독 드라마틱하거나 감성적으로 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알앤비를 시도한 "CRAZY"에서 그 의도는 더욱 명백해진다. 다만 당연하게도 어느 정도의 완급 조절이 있을 뿐, 극단적으로 어둡기는 매한가지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느껴야 할 부분이려나. 실력과 미학, 여기에 스타성까지 모두를 잡으려는 것을 보니 확실히 목적 지향형의 애심가라 할 만하다.



### No Bring Ins by Chy Cartier

Released April 4, 2025

- 1 REAL BOSS CHICK
- 2 NO BRING INS
- 3 DIFFERENT KETTLE
- 4 NOT THE ONE
- 5 PROBLEM
- 6 YO
- 7 SHUSH
- 8 SN
- 9 GOOD APPROACH
- 10 CRAZY
- 11 LOCKED IN
- 12 WEAKEST LINK

그런 의미에서 작품의 목적과 그녀의 애심에 대한 최종적인 고찰로 글을 마감하려 한다. 런던의 장르 씬과 본작의 관계, 혹은 상기한 대로 'The Bounce'라는 가제를 붙인 본 프로젝트의 관계로부터 문득 미국 서부의 하이파 씬과 너버스 뮤직의 관계가 떠오른다. 비록 후자는 댄스와 파티에서 갱과 후드로 분명히 다른 테마와 분위기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너버스 뮤직은 기원이 된 장르로부터 다른 결의 변혁을 피하기 위해 파생된 것이 아니다. 고전 평크를 바라보던 하드코어처럼 고유의 미학에 더 원초적이고 일관적인 관점에서 계승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한 것이다. 차이도 드릴 씬에 비슷한 관점을 갖고 근본에 더 깊이 파고들려 했다. 그렇다고 Drakeo the Ruler와 동등한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뉴웨이브를 개척했다고 말하기에 설부르다. 그럼에도 본작으로 하여금 그녀가, 이를테면 너버스 뮤직의 대표격 여성 래퍼 Hook에게 버금가는 역할을 해줄 것이란 기대를 갖게 된다. 이 영특한 지력가는 이미 차기작을 통해 이를 실현할 준비를 마친 상태일지도 모르겠다.

EDITOR 감상주의

os ChaosLive

LiveCh

**KEN CARSON**  
**《MORE CHAOS》**

5



2023년 10월 13일, <A Great Chaos>를 발매한 켄 카슨(Ken Carson)은 마침내 잠재력을 터뜨리며 자신이 OPIUM에 영입된 이유를 증명했다. 그는 사실 OPIUM의 수장인 플레이보이 카티(Playboi Carti)보다 먼저 레이지 사운드를 세상에 선보였던 젊은 대가였다. 이후 2024년을 일종의 안식년으로 보낸 켄 카슨은 <A Great Chaos>의 디럭스 버전을 추가 발매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그리고 2025년, 플레이보이 카티가 일으킨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올해를 OPIUM의 해로 만들겠다는 듯 새로운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본래 <More Chaos>는 <A Great Chaos>의 디럭스 버전이 될 예정이었으나, 해당 작품의 컨셉과 정신을 계승하는 또 다른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을 고려할 때, 본작이 전작과 공통점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은 어렵지 않았다. 실제로 켄 카슨은 중요한 순간마다 전작의 특징이었던 인상적인 트랜지션을 활용했으며, 이른바 '뱅어'에 해당하는 트랙들 역시 <A Great Chaos>의 신스 레이어링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었다. 그는 "It's Over"와 같은 트랙을 더욱 거칠고 어두운 사운드로 연마하여 앨범의 여백을 채워 넣었다. 또한 본인의 하드코어한 컨셉을 더욱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며, 이전보다 수위가 한층 높아진 가사를 통해 보다 파괴적인 인물상을 그려냈다.



그러나 이것이 전작에 비해 진일보한 사운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A Great Chaos>는 서로 다른 질감의 신디사이저를 각 트랙마다 적절히 배치하면서도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켄 카슨의 독창성과 노련함이 돋보였던 작품이었다. (“Nightcore 2”와 “Lose It”만 비교해 봐도 그 차이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본작에서는 비슷한 분위기와 질감을 가진 트랙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반복적이고 지루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는 특히 앨범의 후반부로 갈수록 두드러지는 약점이었다. 또한, 레이지 사운드를 활용하여 청각적 쾌감을 선사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던 켄 카슨의 퍼포먼스는 본작에서 오히려 자기 복제에

가깝게 느껴지기도 했다. OPIUM 팬덤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Lil 88과 플레이보이 카티의 과거를 상징하는 Pi'erre Bourne이 프로듀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발매 이후 새롭게 추가된 트랙 "Off The Meter"에는 Destroy Lonely와 플레이보이 카티가 참여해 OPIUM의 공식적인 첫 단체곡이 탄생하는 등 크레딧만으로도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애초부터 앨범 전체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전작을 정신적으로 계승하는 중반부까지의 뱅어 트랙들이 앨범 전체를 지탱하고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요소들이 오히려 아쉬움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플레이보이 카티의 <MUSIC>에서 나타난 장단점과도 일맥상통한다. 결국 OPIUM은 2025년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 해로 보내고 있으나, 아직 과거의 영광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한 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한 새로운 시도들로 인해 다소 먼 길을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EDITOR SONGCHICO



**More Chaos**  
by Ken Carson

- 1 Lord Of Chaos
- 2 Xposed
- 3 Money Spread
- 4 Root Of All Evil
- 5 K-Hole
- 6 Trap Jump
- 7 Blakk Rokkstar
- 8 LiveLeak
- 9 Diamonds
- 10 Dismantled
- 11 200 Kash
- 12 Down2Earth
- 13 Confetti
- 14 Naked
- 15 Kryptonite
- 16 Psycho
- 17 Inferno
- 18 Thx
- 19 2000
- 20 Evolution
- 21 Ghoul
- 22 Off The Meter (Feat. Destroy Lonely & Playboi Carti)

Released April 11, 2025

**Blu & August Fanon  
«Forty»**

**6**

블루(Blu). 20년 차 베테랑 래퍼. 두 번의 10년이 지날 동안 언더그라운드 힙합 씬에서 여전히 건재하게 살아남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그는 매년 2~3장의 작품들을 발표하며 양과 질 양면에서 꾸준함을 입증해 왔다. 그리고, 그의 역량은 그의 래핑을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는 훌륭한 프로듀서와 파트너가 있을 때 더욱 빛나곤 하였다. 여전히 그는 프로듀서 Exile과의 협업 프로젝트, Blu & Exile의 〈Below the Heavens〉와 〈Miles〉 같은 작품들로 기억되고 있고, 나아가 그가 최근 발표한 본인 명의의 작품 중 가장 훌륭한 퀄리티를 자랑했던 〈Los Angeles〉, 〈Bad News〉와 같은 작품들 역시 Evidence와 Real Bad Man이라는 탁월한 조력자가 곁에 있었으니 말이다. 〈Forty〉는 그런 블루가 40번째 생일을 맞아 발표한 새로운 앨범으로, 훌륭한 프로듀서 August Fanon(어거스트 패논)과의 전면적인 협업을 통해 완성되었다. 블루는 본작에서 자신의 나이, 커리어, 가족, 사랑에 관해 노래하며 자신의 동료 아티스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조망하고 있다.



모든 트랙에 2명 이상의 피처링이 기용된 본작에서 블루는 이들을 본인의 활약을 부각시키기 위해 활용한 것이라기보다는, <GNX>의 Kendrick Lamar와 유사하게 자신을 큐레이터로 명명하며 동료들이 리스너들의 주목을 받게끔 돋고 있다. 어거스트 패논의 프로덕션은 <Forty>의 공동체적 서사를 완성해 주는 실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본작은 단순하고 칙칙한 소울 샘플들이 반복되며 감정적으로 훌륭한 순간들을 연출해 내는데, 그 예시로 "Worthy"의 고전적인 질감은 Cashius, ScienZe와 블루의 진솔한 회고를 더욱 아름답게끔 보이게 만들고, 어거스트 패논의 역량이 가장 잘 발휘된 "Simple"의 반복적인 소울 보컬 샘플은 트랙에서 랩을 뺀 여러 래퍼들의 현 사회에 관한 통찰—학교의 총기난사, 갭싸움, 빈부격차—에 이어 리스너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내던진다. '과연 과거엔, 그 모든 게 더 단순했던 걸까?'



그러나 샘플링의 의존도가 다소 과했던 탓일지, 앨범에서의 프로덕션이 다소 과잉되어 있다 느껴지는 지점들도 종종 존재한다. 모든 트랙이 감정적인 연출에 집중하고 있다보니, 때때로 앨범의 트랙들이 각각의 개별적인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하나의 분위기로 지나치게 단조롭게 곡을 전개해 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Love (1-4)"는 서사 구조나 피처링의 다양성 면에서 흥미로우나, 네 파트에 이어지는 끈적한 질감의 밀도가 다소 지나치다 느껴진다. 블루와 어거스트 패논은 따뜻하면서도 날카롭게 리스너들을 포용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쉽게 포화되는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 블루의 래핑은 언제나 그랬듯이 깔끔하다. 비트를 뚫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위를 유유히 떠다닌다. 그는 화려한 랩 스킬보단, 맥락과 흐름 속에서 한 줄 한 줄 가사를 쌓아간다. 타이틀 트랙 "Forty"에서 그는 자신이 나이가 들었음을 무덤덤하게 인정하며, '난 400개의 피처링을 했고, 앨범도 20장이 넘는데, 아직도 월간 청취자는 50만 명이야. 앞으로 도달해야 할 80억이 남았네'라며 여전히 자신에게는 나아가야 할 길과 목표가 있다고 선언한다. 피처링 래퍼들의 활약이 유독 두드러지는 본작에서도 블루의 활약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유. 그것은 블루의 래핑이 '나'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출발해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Forty〉는 블루가 지난 20년간 어떻게 커리어를 이어 왔는지, 또 그가 왜 힙합씬에서 중요한 인물인지에 대한 유효한 답과 단서를 제공한다. 그는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음으로써 이 시대의 대변인이자 래퍼가 되었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시대를 거쳐온 블루. 40살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된 〈Forty〉는 그런 그의 궤적 속에 놓인 또 다른 빛나는 결과물이자, 동시에 그가 품고 있는, 혹은 품어진 커뮤니티를 향한 애정의 증거이다. 그렇기에 〈Forty〉는 분명 모두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일 테다.

EDITOR 자카



## Forty by Blu & August Fanon

Released April 18, 2025

- 1 [Forty \(feat. Chris Clarke & Mickey Factz\)](#)
- 2 [Worthy \(feat. Cashus King & Scienze\)](#)
- 3 [Simple \(feat. Sene & Chester Watson\)](#)
- 4 [Love \(1-4\) \(feat. Wyldeflowher, Geminelle, Yah-Ra, Lexxus & Noveliss\)](#)
- 5 [Dance \(feat. Phoenix Cruz & Charles Hamilton\)](#)
- 6 [Happy \(feat. Kota The Friend & R.A.P. Ferreira\)](#)
- 7 [Knowledge \(feat. Triune & Tristate\)](#)
- 8 [Bible \(feat. Propaganda & PCH\)](#)
- 9 [Human \(feat. Homeboy Sandman & Asher Roth\)](#)
- 10 [Loser \(feat. Cashus King & Stik Figa\)](#)
- 11 [Joy \(feat. Fashawn & Choosey\)](#)



■ CLASSIC





1

Missy Elliott  
«Miss E... So Addictive!»

요즈음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미시  
엘리엇(Missy Elliott)의 "Get Ur Freak On"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에도 댄스 학원이나  
동아리에서 당신의 어린 조카가 "One Minute  
Man"에 맞춰 안무를 연습 중임을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반면에 조카의 입장에선 그  
노래가 다소 춘스럽게 들리긴 해도, 춤을 추기에  
적합하고 무대에서도 곧잘 먹히니 나도 덩달아 추고  
있는 것이겠거니 하며, 대충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신은 절대 잊지 않았을 것이다. 미시  
엘리엇의 음악이 클럽에서 얼마나 잘 나갔고, 유행을  
선도해 왔는지 말이다. 그러나 조카의 말마따나 삼촌  
세대나 싸구려 아이튠스로 들던 히트곡이, 어째서  
아직도 유튜브나 틱톡, 심지어 학교 강당에서까지  
이만한 열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선  
모를 것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논의는 어쨌든  
세대론이다. Y2K 세대의 댄스 클럽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크렁크 붐 시대보다 더 전으로  
거슬러 내려갈 것이다. 물론 당연히 주 무대는  
남부 흑인음악 씬이다. 다만, Lil Jon이 아니라  
Timbaland가 주인공이던 시절을 이야기할 것이다.  
요란한 추임새와 자극적인 전자음은 유감스럽지만,  
논외 대상이다. Tim의 비트는 그보다도 간결하고  
캐주얼하지만, 더 이상야릇하고 종잡을 수 없다.  
"Get Ur Freak On"만 해도 그렇지 않은가.

지금에서야 애들 장난 같은 리코더나 실로폰부터, 이름조차 낯선  
각국의 전통악기까지 뱅어에 쓰이는 일이 무슨 대수겠는가.  
그러나 당시의 트렌드라면, 오히려 누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인도의 타블라(Table)와 팀비(Timbi)를 샘플링하고 거기에 불길한  
드론을 끼얹을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의 히트곡 제조법은  
하나같이 모두의 상식을 뒤엎는 기발함, 달리 말해 황당무계할  
만큼 괴팍하면서도, 중독적인 신선힘에 기인했다. Ginuwine의  
"Pony"부터 <Super Duper Fly>의 "The Rain", Jay-Z의 "Dirt Off  
Your Shoulder"까지 그의 새로운 비트 공식은 언제나 트랙 스킵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감초 노릇을 해왔다. 그리고 그의 기술력은 미시  
엘리엇과 함께할 때 가장 독보적인 시너지를 발휘한다. 퍼포먼스,  
영상 연출, 비주얼 등 모든 면에서 기발함을 센세이셔널함의  
영역으로 옮기는 엘리엇의 몫이 크다. 그 증거가 <Miss E...>이며,  
당신 세대와 당신 조카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 모두 여기에 있다.



본작은 한마디로 밀레니엄 커머셜 레코드의 대표라 할 수 있다. 비단 클럽이나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빌보드와 온라인(이를테면 냅스터), 라디오와 MTV까지 아우르며 산업 전반에 전염성을 이끄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렸다. 랩과 보컬을 맛깔나게 변용하려거든 이런 식으로 재치와 감각을 발휘해야 하고, 힙합과 소울로 새로운 팝을 만들려거든 이런 식으로 버무려야 하며, 모타운식 댄스와 횡크로도 미래지향적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런 식으로 변주해야 하는 것임을 알렸다. 심지어 힙스터들의 이목을 이끌려는 노골적인 속셈 없이도, 가장 까다롭던 시절의 Pitchfork나 Paste마저 얼마든지 만족시킬 수 있음까지 알렸다.

앨범 구성에 있어서도 그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르쳤다. 좋은 말로 심플한, 나쁜 말로 무식한 정석으로 말이. 기대를 단번에 끌어올리고 싶은가? 일단 우리가 완전히 새롭고 매혹적인 음악으로 당신들을 사로잡겠노라 당당하게 선언하라. 앨범 타이틀과 인트로 트랙의 내레이션처럼 말이다. 그런 다음 5곡에 달하는 전반부를 작정하고 뱉어로 도배해버리면 된다. 그러다가 귀에 물리기 시작하면 어떡하나고? 한두 곡 정도 템포 낮춰서 감미롭게 달래주면 된다. 진득한 알앤비 송으로 달싹지근한 당근을 선물해 주자. 다시 애타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면, 옳거니, 이제부터는 내가 뭘 꺼내든 이미 상대는 헤어 나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 기세 그대로 "4 My People"부터 "Slap! Slap! Slap"까지 쭉 달린다. 여기에 리믹스 트랙으로 말미암은 착실한 팬 서비스와 여운 가득한 발라드로 피날레를 장식해 주면, 청중으로부터 나올 대사는 딱 하나다. "<So Addictive>!"



# So Addictive



Miss E... So Addictive!  
by Missy Elliott

Released May 15, 2001

- 1 ...So Addictive (Intro) (feat. Charlene "Tweet" Keys)
- 2 Dog in Heat (feat. Redman & Method Man)
- 3 One Minute Man (feat. Ludacris)
- 4 Lick Shots
- 5 Get Ur Freak On
- 6 Scream a.k.a. Itchin'
- 7 Old School Joint
- 8 Take Away (feat. Ginuwine & Kameelah Williams)
- 9 4 My People (feat. Eve)
- 10 Bus-a-Bus Interlude (feat. Busta Rhym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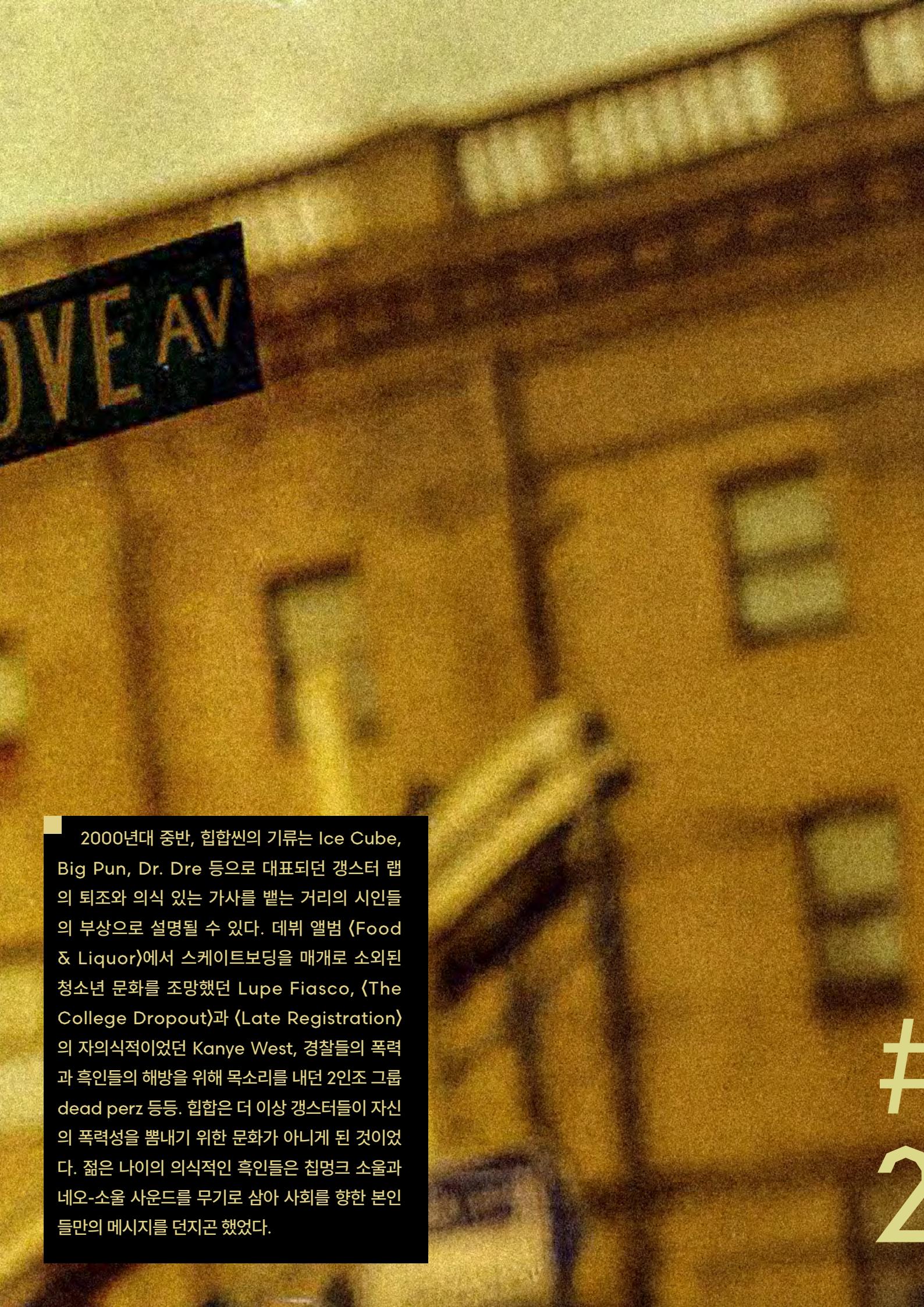
요컨대 본작은 구성 면에서나, 스타일 면에서나, 혹은 캐릭터 면에서나 힙합을 넘어서 밀레니엄 팝의 교보재다. 후대의 여성 스타들에게 특히 그러하다. 심지어 2NE1을 비롯한 일부 2세대 케이팝 걸그룹에게 끼친 영향은 가히 명백하며 막대하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그토록 영향을 받은 룰 모델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후배 그룹이나 연습생, 아니면 단지 춤을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서문에 언급했던 대로 아직까지도 그녀의 음악을 찾고 있다. 중독과 전염 그보다 훨씬 이상의 화학 작용이 엔터테인먼트 전체를 집어삼킨 지도 하염없이 오래됐지만, 종식될 순간은 한참 멀었거나, 없다.

EDITOR 감상주의

- 11 Whatcha Gon' Do (feat. Timbaland)
- 12 Step Off
- 13 X-Tasy
- 14 Slap! Slap! Slap! (feat. Da Brat & Ms. Jade)
- 15 I've Changed (Interlude) (feat. Lil' Mo)
- 16 One Minute Man (Remix) (feat. Jay-Z)
- 17 4 My People (Basement Jaxx Remix)
- 18 Higher Ground (Prelude) (feat. Tweet)
- 19 Higher Ground (feat. Karen Clark Sheard, Yolanda Adams, Kim Burrell, Dorinda Clark Cole, Mary Mary & Tweet)

Common  
«Be»

2



2000년대 중반, 힙합씬의 기류는 Ice Cube, Big Pun, Dr. Dre 등으로 대표되던 갱스터 랩의 퇴조와 의식 있는 가사를 맵는 거리의 시인들의 부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데뷔 앨범 〈Food & Liquor〉에서 스케이트보딩을 매개로 소외된 청소년 문화를 조망했던 Lupe Fiasco, 〈The College Dropout〉과 〈Late Registration〉의 자의식적이었던 Kanye West, 경찰들의 폭력과 흑인들의 해방을 위해 목소리를 내던 2인조 그룹 dead perz 등등. 힙합은 더 이상 갱스터들이 자신의 폭력성을 뽐내기 위한 문화가 아니게 된 것이다. 젊은 나이의 의식적인 흑인들은 침멍크 소울과 네오-소울 사운드를 무기로 삼아 사회를 향한 본인들만의 메시지를 던지곤 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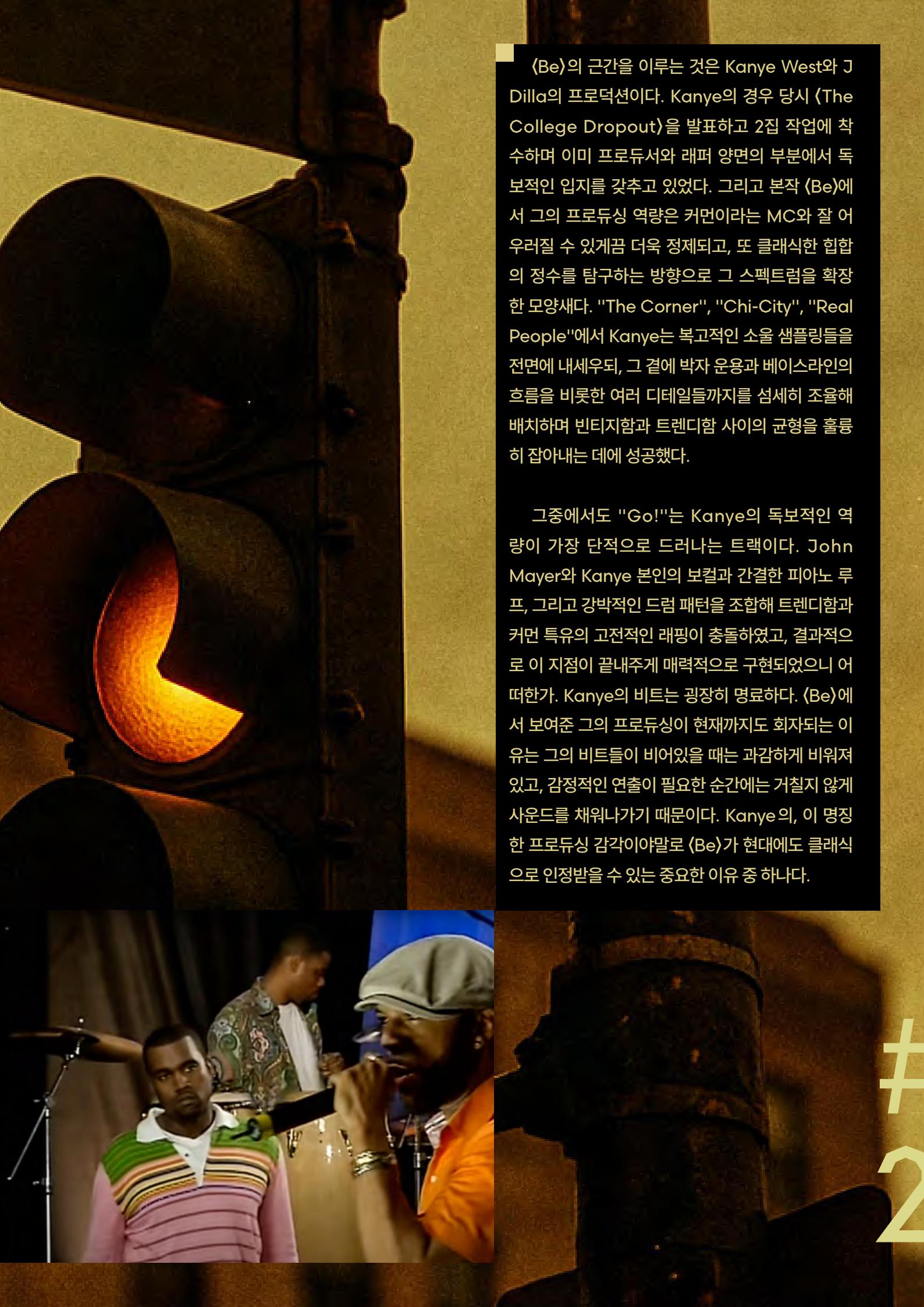
2

그리고 그곳에는 Common(커먼)이 있었다. Common Sense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초기의 그는 1994년 〈Resurrection〉이란 이름의 걸작을 발표하며 단숨에 평단과 리스너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앨범의 수록곡이자 힙합 역사상 가장 중요한 트랙 중 하나로 손꼽히는 "I Used to Love H.E.R"에서 힙합 문화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한 그는 이후 Ice Cube와의 마찰을 겪었고, 해당 디스전에서 완벽한 승기를 거머쥐어 컨셔스 랩의 부흥을 이끌었다.

그런 그에게도 일시적인 방황과 변화의 시기가 찾아왔다. 그는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했고, 그는 여전히 본인의 최고작 중 하나로 손꼽히는 〈Like Water for Chocolate〉, 그리고 〈Electric Circus〉로 색다른 시도와 일종의 반향을 꾀했었다. 본 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작품은 바로 후자에 있다. 〈Electric Circus〉는 재즈, 소울, 일렉트로 니카를 비롯한 기타 장르들의 흡수와 당시 Erykah Badu와의 교제와 Soulquarians 크루와의 협업을 통해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실험성을 표방하고 있었으나, 그의 이전 작품들과 달리 엇갈린 평가를 마주하게 되었다. The Guardian은 본작을 힙합이 무엇인지에 관한 획기적인 청사진이라 평했고, Pitchfork는 본작을 완전히 게으르고 산만한 정체 불명의 음반이라고 정의 내렸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비판을 마주하게 된 커먼은 〈Electric Circus〉 이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모든 실험적인 음악들이 꼭 위대함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Electric Circus〉 이후 3년 만에 발표된 커먼의 6번째 정규 앨범 〈Be〉는 흔히 화귀라는 단어로 요약되고는 한다. 그러나, 〈Be〉를 그저 단순한 컴백 앨범 남짓의 작품으로 평가한다면 그것은 분명 큰 오산일테다. 〈Be〉는 실패의 뒤안길에서 이루어진 재정비와 자아 확립 끝에 도달한 정제된 형태의 자가 인식이었으며, 커먼이 본인의 장점이 무엇인지—그리고 힙합이라는 장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 결과물이었다. 앞선 문단에서 언급했듯, 〈Electric Circus〉의 실험 정신은 나름 높이 평가할만했음에도 불구하고—결국 그는 보다 미니멀하고 밀도 높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시를 다시금 써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Be)**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Kanye West와 J Dilla의 프로덕션이다. Kanye의 경우 당시 *(The College Dropout)*을 발표하고 2집 작업에 착수하며 이미 프로듀서와 래퍼 양면의 부분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본작 **(Be)**에서 그의 프로듀싱 역량은 커먼이라는 MC와 잘 어우러질 수 있게끔 더욱 정제되고, 또 클래식한 힙합의 정수를 탐구하는 방향으로 그 스펙트럼을 확장한 모양새다. "The Corner", "Chi-City", "Real People"에서 Kanye는 복고적인 소울 샘플링들을 전면에 내세우되, 그 곁에 박자 운용과 베이스라인의 흐름을 비롯한 여러 디테일들까지를 섬세히 조율해 배치하며 빈티지함과 트렌디함 사이의 균형을 훌륭히 잡아내는 데에 성공했다.

그중에서도 "Go!"는 Kanye의 독보적인 역량이 가장 단적으로 드러나는 트랙이다. John Mayer와 Kanye 본인의 보컬과 간결한 피아노 루프, 그리고 강박적인 드럼 패턴을 조합해 트렌디함과 커먼 특유의 고전적인 래핑이 충돌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지점이 끝내주게 매력적으로 구현되었으니 어찌한가. Kanye의 비트는 굉장히 명료하다. **(Be)**에서 보여준 그의 프로듀싱이 현재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그의 비트들이 비어있을 때는 과감하게 비워져 있고, 감정적인 연출이 필요한 순간에는 거칠지 않게 사운드를 채워나가기 때문이다. Kanye의, 이 명칭 한 프로듀싱 감각이야말로 **(Be)**가 현대에도 클래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고 해서 Dilla의 프로듀싱 역시 무시할 것이 못 된다. Dilla가 프로덕션을 맡은 트랙들은 Kanye의 것보다 느슨하고 재즈적인 결이 돋보인다. "Love Is...", "It's Your World, Pt. 1 & Pt. 2"에서 Dilla는 특유의 스윙감과 불균형한 프로덕션의 미학을 유지하면서도, 커먼의 래핑에 맞춰 본인의 프로덕션을 훌륭하게 절제해냈다. 그의 드럼은 아주 미세하게 박자를 타고, 샘플링된 피아노와 현악기 사운드들은 한 박자 늦게 감정을 표출한다. Dilla의 손끝에서 탄생한 트랙들은 분명 Kanye의 것보다는 덜 구조화 되어있고 덜 명확하지만, 오히려 그 모호함이 앨범의 트랙들을 더욱 여운 있게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Be)*는 두 거장의 상반된 프로듀싱 철학이 충돌하지 않고, 되려 이가 하나의 커다란 문법 아래서 공존하는 보기 드문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Be)*의 빛은 순전히 Kanye와 Dilla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 중앙에는 커먼의 언어가 있었다. *(Be)*에서 그는 다시금 시인이 되었다. 힙합이라는 문화를 여자로 의인화했던 그의 대표곡 "I Used to Love H.E.R."의 날카로운 시선을 잃지 않으면서도, 그는 본작에서보다 성숙하고 사려 깊어진 시선으로 사랑, 미래, 현재를 비롯한 여러 복잡한 개념들을 조망한다. "The Corner"에서 그는 흑인 커뮤니티의 고단한 일상을 고발했고, "Testify"에서는 하나님의 법정 드라마를 랩이라는 도구를 통해 완성했다. 커먼은 본작에서 더 이상 대의명분을 소리 높여 외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웃의 친근한 말투로, 혹은 속삭이는 어조로 우리에게 진실을 들려주었다.

■ 앨범의 포문을 열어젖히는 "Be (Intro)"는 그야 말로 현대 힙합씬의 인트로 트랙을 상징하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금씩 등장하는 혼악기 사운드와 Kanye의 간결한 비트, 반복되는 업비트 베이스 루프 위로 커먼이 읊조리듯 내뱉는 'I want to be as free as the spirits of those who left'라는 첫 문장은 <Be>가 단순히 그의 과거로의 회귀를 담은 작품이 아니라 지금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현재의 선언임을 나타낸다. 그는 현재 본인이 살아 있음을 찬미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얼마나 비루하면서도 복잡한 감정인지를 설명한다. 그것이 "Be (Intro)"가 역대 최고의 힙합 앨범 인트로 트랙 중 하나인 이유이다. "Be (Intro)"는 <Be>라는 작품을 대변하는 트랙이자, 앨범 전체의 정서적인 설계도를 제시한 상징적인 트랙이다.

이후의 트랙들에서 커먼은 명확한 주제를 갖고 앨범을 전개해 나간다. 자아, 공동체, 사랑, 신앙, 생존, 또 미래. 커먼은 이러한 여러 축을 바탕으로 곡들을 배열하고, 각 주제에 관한 깊은 통찰을 이끌어낸다. "Faithful"에서 그는 신과의 관계에 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Love Is..."에서는 사랑이란 감정의 덧없고도 찬란한 본질을 천천히 풀어낸다. 더욱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Be>에서 그는 특별히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거창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상적인 어휘들로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점이다. 커먼이 본작에서 보여준 리릭시즘은 마치 누군가의 일기처럼 평범한 내용이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과 표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못하다.



앨범의 전반적인 구성 역시 주목할 만하다. 11트랙, 42분이라는 당시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짧은 러닝타임을 가졌던 〈Be〉는 그만큼 군더더기가 없다. 각 곡은 독립적인 감정을 전달함과 동시에, 앨범의 흐름이 어수선해지는 지점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두 프로듀서 Kanye와 Dilla의 치밀한 설계와 커먼의 몰입감 있는 퍼포먼스가 맞물린 결과다. 특히 마지막 트랙 "It's Your World, Pt. 1 & Pt. 2"는 아웃트로 트랙으로서의 완급 조절과 서사를 완벽히 조율해 내며, 리스너들에게 격한 감동과 여운의 도가니를 선사한다. "난 오리가 되고 싶어, 난 레슬링 선수가 될래, 난 멋진 댄서가 될 거야, 난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될 거야. 이건 너의 세상이잖아". 곡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인터루드 파트와 Bilal의 아름다운 코러스는 힙합 역사상 최고로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 손꼽힐만하다.



이처럼 *(Be)*는 어떤 커다란 혁신을 꿈꾸거나, 화려한 테크닉으로 무장한 앨범이 아니다. 오히려 커먼은 자극적인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서, 삶과 힙합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렇기에 *(Be)*가 커먼의 최고작으로 귀결되는 것은 어쩌면 극히 당연한 결과였을 것이다. *(Be)*는 2000년대 초반 힙합씬의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단호하게 가리켰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커먼은 *(Be)*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냈다. 힙합은 폭력의 언어나, 오락의 수단으로만 소비될 문화가 결코 아니다. 힙합은 거리의 시이자 삶의 기록이고,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언어가 진정성을 떨 때, 그것은 수많은 영혼에 안식과 위안을 선사할 수 있다. *(Be)*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 준, 조용하지만 강력한 증거이다.

EDITOR 자카



Released May 24, 2005

Be  
by Common

- 1 Be (Intro)
- 2 The Corner (feat. The Last Poets)
- 3 Go!
- 4 Faithful
- 5 Testify
- 6 Love Is...
- 7 Chi-City
- 8 The Food (Live) (feat. Kanye West)
- 9 Real People
- 10 They Say (feat. Kanye West & John Legend)
- 11 It's Your World (Part 1 & 2) (feat. Bilal & Pops)



## FEATURE

- <sup>1</sup> 제 3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
- <sup>2</sup> 크로마코피아 투어 미리보기

## Warning

“KHL 매거진에 합류하고 나면, 매거진과 각종 활동을 위해 존재하는 디스코드 채널에 초대된다. 그리고 그 채널엔 ‘자유게시판’이 있다. 사담과 조롱이 난무하는 이 곳에선 종종 음악적 토론이 벌어지는데, 이 사람들 취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 사람들의 이를 악문 토론을 볼 때마다 한 생각이 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간다. ‘이 사람들에게 서로의 음악을 추천해서 억지로 듣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렇게 이번 매거진 글 소재라며 말을 꺼내 사회 실험을 해보려고 한다.” 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던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에디터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괜찮은걸 보니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그래서 3회차도 레스고해보려 한다.

## 새로운 시작



랜덤리뷰



컴퓨터 끄기

로그인한 후, 계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으로 가서 [사용자 계정]을 클릭하십시오.

FE<sup>1</sup>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III

Music

Cats

Dishes

Set your listening preferences

— Today's mood

- Yoosin Kim 《sDauurem》
- Lil Bo Weep 《SOLOS》
- Blackstarkids 《CYBERKISS》
- Asian Kung-Fu Generation 《君繫ファイブエム[KIMI TSUNAGI FIVEM]》
- 999 Heartake Sabileye 《Songs For Spaces》
- Hiroshi Suzuki 《Cat》
- LXST CXNTURY 《UNIVERSE OF THE PAST》
- Coldcut 《Let Us Play》
- Diggy-MO' 《BEWITCHED》

Reset Album...

Try this to get some attention.

OK

Cancel

Unexpected results will occur.



Want to shuffle albums?

OK

Intro Full Classic Feature 1 Feature 2 Editor's Pick

Album Yoosin Kim «sDauurem»

재생하자마자 귀를 괴롭히는 노이즈의 향연에 ‘바로 이거구나’ 싶었다. 생소한 이름과 무언가 쉽게 읽을 수 없는 타이틀, 그리고 장르까지 오늘도 괴상한 음악을 디깅하는 전음러들을 단박에 훌릴 수 있는 조합. 전형적인 Autechre 스타일의 텍스처 사이로 여러 국악 관악기가 날아드는 인트로, 굿판 같은 무드의 “cpitmess”, 아예 노이즈와 드럼을 배제하며 애스닉한 분위기를 연출한 “TtoPleasee”까지 첫 세 곡이 전부 재미있어서 무릎을 탁 쳤다. 자고로 이런 전자음악은 그 무엇보다 텍스처가 중요한 법. 그런 면에서 생경한 소스를 여럿 동원한 이 앨범은 성공에 가깝다. 다 청취한 후 궁금증이 폭발해 아티스트의 밴드캠프를 찾아보니 비로소 등장하는 제목 ‘다스름’의 의미, 새롭게 만든 악기와 그 특징, 각 트랙에서 사운드를 세밀하게 깎아낸 방법 등 수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말 멋진 음반이다. 올해의 최대 발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

Cover



Recommender

자카

by

moogsick

Album Lil Bo Weep «SOLOS»

재생하자마자 이 분에게서 웬지 모를 yeule의 향기가 났다. 뭐랄까, 속해 있는 현실과 동떨어지고 싶어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스스로에게 극도의 우울감을 느끼는. Dazed and Confuzed 상태에서 이미 Confuzed 레벨은 넘어버린. 복잡하게 묘사했지만 음... 그냥 한마디로 멘헤라의 냄새가 풀풀 풍겼다. 한 시간의 러닝타임 동안 청자를 흐물흐물해지게 만드는데, ‘해파리가 되고 싶어...~(ˇˇ~)’ 요런 느낌보다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 (ˋˋ)`’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멜로디가 매력 있다기보다 최소한의 드럼과 패드로 무던무沌하게 청자를 천천히 침잠시키는 방식이 – 특출나진 않지만, 충분히 감정을 파고들었다. 이런 이모(Emo) 계열은 백이면 백 멜로디의 지분이 를 텐데 말이다 (신기했다). 이렇게 글루미하고 멜랑꼴리한 이모 랩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감상하기도 했고, 자연스레 이분에게 호기심이 생겨 구글링해보니 ... 어라,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레딧 유저들은 악물증독이 원인이라 추정하는 듯한데... 뭐, 우울증, PTSD, 트라우마 등이 복합적으로 얹혀서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나 싶다. 음, 찜찜해졌다.

Cover



Recommender

SONGCHICO

by

SRUKSAN

Intro Full Classic Feature 1 Feature 2 Editor's Pick

Album Blackstarkids «CYBERKISS\*»

이 앨범이 걸리고 일단 기분이 좋았다. 왜냐? 앨범아트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아티스트 명이 Blackstarkid인게 일본의 Starkids를 생각나게 했다. 그래서 혹시 Starkids처럼 정신 나간 음악을 하나? 싶은 마음에 상당히 기대하며 들었다. 결론적으로 그런 정신 나간 앨범은 아니었지만, 꽤 기분 좋게 들었다. 막 중간중간 플러그나 디자코어같은 음악도 무슨 00년대 팝펑크 같은 곡도, 조용한 신스 팝 같은 소리도 다 섞여서 번갈아 들리는데 이거 꽤 아련하다... 그래서 마냥 신나진 않고 중간에 센치해지기도 했다. 마치 시끌벅적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 혼자 흐뭇하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벅찬 느낌이랄까...?? 암튼 그 감정선이 굉장히 독특했고 그래서 좋았다 종종 꺼내 들어야지 헤헤

Cover



Recommender

공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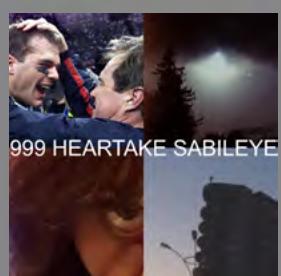
by

SONGCHICO

Album 999 Heartake Sabileye «Songs For Spaces»

베이퍼웨이브라느니, 헥스디라느니, 나에게 그다지 친숙한 키워드는 아니다. 한술 더 떠 999 Heartake Sabileye라니,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 쉽지 않은 그는 가뜩이나 뭐 이리도 위하고자(Song for ~) 하는 것이 많은가. 각 곡마다의 부제까지 더해지며 나를 수수께끼의 무덤 속으로 깊이 밀어 넣는다. 곡들에는 셀 수 없는 레퍼런스나, 서브 컬처, 밍들이 이스터에그처럼 포진해 있는 듯한데, 모두 알아차리고 싶음에도 나는 오로지 그나마 들어봄 직한 샘플과 사운드에 의존해야 한다. 디자코어 아티스트에게 유독 잘 관찰되는 클라우드 랩의 리믹스나 매시업으로부터 나를 반가운 감흥으로 시작하다가, 초창기 M83을 연상케 하는(특히 "Cincinnati") 분위기 변화를 따라가다가, 다시 매시업이다. 그중 "Family Ties"가 두 번 정도 나오는 것은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수미상관을 노린 전략일까 싶어진다. 황당하다고만 여겼는데 곡을 거듭할수록 여려모로 영특한 청년의 본모습이 보인다.

Cover



Recommender

denim

b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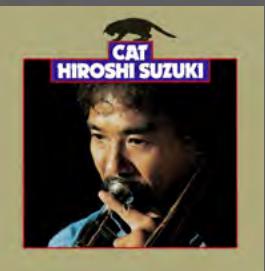
감상주의

Intro Full Classic Feature 1 Feature 2 Editor's Pick

Album Hiroshi Suzuki «Cat»

유튜브 알고리즘의 은총을 겪어본 리스너라면, 썸네일만 보고도 ‘느낌이 오는’ 음악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이다. 히로시 스즈키의 〈Cat〉을 처음 접했을 당시, 나는 그가 버디 리치(Buddy Rich)의 밴드 멤버였다는 사실도, 해당 앨범이 단 이를 만에 완성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그저 ‘명반 냄새’가 나는 빈티지한 커버에 이끌려 영상을 클릭했다. 우아한 무도회장 한가운데서 둘만의 세상처럼 부기 춤을 추는 커플이 그려지는 “Shrimp Dance”부터, 파란 하늘을 지붕 삼아 낮잠이나 자고 싶어지는 “Romance”까지 — 약 40분에 이르는 자유로운 잼 세션은 나를 1976년으로 데려갔고, 자연스레 재즈 퓨전의 길로 이끌었다. 그리고 오늘, ‘랜덤 리뷰’를 통해 〈Cat〉은 또 한 번 나를 찾아왔다. 앨범을 이끄는 트롬본 소리는 여전히 묵직했고, 이시카와의 드럼은 그와 대조적으로 가볍고 날렵했으며, 선율은 여전히 꿈결처럼 고웠다. 수년의 시간 사이에 나도, 세상도 많이 달라졌지만, 스즈키의 고양이만은 나른한 눈으로 나의 동심을 깨뚫어 본다.

Cover



Recommender

ryuzimoto

by

denim

Album LXST CXNTURY «UNIVERSE OF THE PAST»

유럽의 북한이라고도 불리는 벨라루스. 당장 우리나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같은 민족의 음악도 접해보지 못했는데, LXST CXNTURY를 통해 벨라루스의 음악을 먼저 들게 되었다. 앨범의 타이틀과 커버에서 대놓고 ‘우주’와 관련된 콘셉트와 사운드를 강하게 밀어붙이리라 마음먹은 듯 보이는데, 첫 곡부터 칠한 분위기 위로 타고 흐르는 풍크의 소리가 이질적이기는 하나 한데 어우러진다. 특히 풍크 특유의 보컬 샘플 사용이 마치 광활한 우주에서 울려 퍼지는 돌아오지 않는 외침처럼 느껴진다. 가끔은 러시아 불곰도 때려잡을 것 같은 강렬한 드리프트 풍크보다 아무도 없는 수영장에서 유유히 배영으로 헤엄치는듯한 LXST CXNTURY와 함께 촉촉히 젖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공ZA는 배영은 물론 자유형도 잘못 하지만!

Cover



Recommender

SRUKSAN

by

공ZA

Intro Full Classic Feature 1 Feature 2 Editor's Pick

Album Coldcut «Let Us Play»

뭉식작가 이 앨범을 선정할 때 같이 덧붙인 말이 있다. ‘초심자에겐 좀 싸가지 없을 음반이긴 하나 힙합이랑 연관점도 많아욧’. 이후 한 번 정주행 했을 때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싸가지 없고 힙합 느낌 낭낭한 앨범이란걸 느꼈다. 수록곡들은 전반적으로 다운템포를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샘플들과 온갖 드럼 패턴의 브레이크비트를 통해 무드의 흐름이 변화한다. 그렇게 탄생한 앨범은 대체로 어둡고 침전된 무드를 띠지만, 세부적으로는 드럼 앤 베이스, 트립 합 등 여러 서브 장르의 활용과 예측불허한 전개로 역동과 정적을 넘나드는 흐름이 돋보인다. 확실히 약간은 정신 사납다고 느낄 만큼 쉽게 들을 앨범은 아니다. 그럼에도 난 앞서 말한 요소들에 깨나 익숙한 편이었고, 덕분에 상당히 만족하면서 들었다. 그 중 “Rubaiyat”까지 이어지는 초반부의 텁텁한 느낌과 역동성이 가장 취향에 가까운 구간이었고, 그 중 “More Beats + Pieces (Daddy Rips It Up Mix)”에서의 경이로운 샘플 나열은 들다가 헛웃음이 나왔을 정도.

Cover



Recommender

moogsick

by

Ioding

Album Diggy-MO' «BEWITCHED»

분명 나에게 일본 힙합 앨범이라고 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물론 전반적인 보컬 진행이 랩으로 이루어져 있긴 하다.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난 이 앨범의 장르를 단순하게 힙합이라고 정의하고 싶지 않다. 평키한 신스와 대놓고 일렉트로닉한 사운드 장치들이 진득하게 물어있으며, 여기에 뻥뻥 대는 툰과 재즈까지. 앨범 커버를 수놓고 있는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들이 모여있는 팔레트 같은 작품이다. 당연히 앨범을 관통하는 유기성은 잘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 곡 한 곡 따로 본다면 깨나 청각적인 쾌감을 만족시켜 준다. 장르의 바운더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요즘 힙합 시장의 흐름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느낌도 있다. 분명 이를 표현하는 전반적인 프로덕션의 요소는 촌스럽지만, 또 그 맛이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모르게 7번 트랙 “Girl My”에 또 손이 가고 있다. 아 일본 가고 싶다.

Cover



Recommender

Ioding

by

ryuzimoto

Intro Full Classic Feature 1 Feature 2 Editor's Pick

## Album Asian Kung-Fu Generation

«君繫ファイブエム(KIMI TSUNAGI FIVEM)»

아시안 쿵 푸 제네레이션(ASIAN KUNG-FU GENERATION)... 이름만 들어도 가슴속 어느 한구석이 벽차오르는 듯하다. 사실 이 밴드의 음악을 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올해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의 최고작으로 평가받는 2집과 3집을 먼저 청취해 보았다. 이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다. Sheena Ringo나 MASS OF THE FERMENTING DREGS와 같은 여타 J-Rock 밴드의 음악은 그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음악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곤 했는데—신기하게도 이들의 음악에는 그러한 장벽이 존재치 않았다. 이번 기회로 들어보게 된 이들의 첫 정규 앨범 〈Kimi Tsunagi Five M〉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멜로디 감각이라거나 악기 구성, 혹은 앨범의 응집력은 앞서 청취했던 두 작품을 이기긴 어려워 보였으나—본작 역시 즐겁게 머리를 훔들며 청취할 수 있던 탁월한 작품이었다. 심지어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들의 데뷔 앨범이라는 것. 다들 꼭 올해 8월 인천에서 만납시다!

## Cover



## Recommender

감상주의

by

자카

An unexpected error occurred.



Do you want to shut down the system?

OK

FE<sup>1</sup>

FEATURE<sup>2</sup>  
크로마코피아 투어 미리보기

CHROMAKOPIA  
THE WORLD TOUR  
PREVIEW

LIL  
YACHTY

TYLER,  
THE CREATOR

PARIS  
TEXAS

FE<sup>2</sup>



**Chromakopia**  
by Tyler, The Creator

Released October 28,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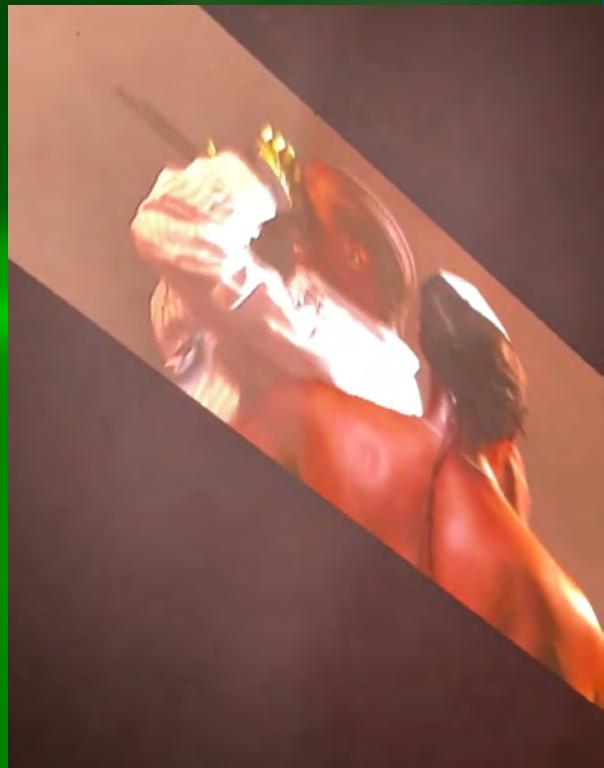
- |   |   |
|---|---|
| 1 St. Chroma (feat. Daniel Caesar)      | 8 Sticky (feat. GloRilla, Sexyy Red, Lil Wayne & Solange) |
| 2 Rah Tah Tah                           | 9 Take Your Mask Off (feat. Daniel Caesar)                |
| 3 Noid                                  | 10 Tomorrow   |
| 4 Darling, I (feat. Teezo Touchdown)    | 11 Thought I Was Dead (feat. ScHoolboy Q & Santigold)     |
| 5 Hey Jane                              | 12 Like Him (feat. Lola Young)                            |
| 6 I Killed You (feat. Childish Gambino) | 13 Balloon (feat. DoeChii)                                |
| 7 Judge Judy (feat. Childish Gambino)   | 14 I Hope You Find Your Way Home                          |

<CHROMAKOPIA>의 깜짝 발매는 2024년 힙합 팬들에게 최고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타일러답 게 독특한 미감을 자랑하는 선공개 곡들과 함께 발 표된 월드 투어 일정에, 훌린 듯 거금을 투자해 버린 한 명의 팬이 여기에 있다. 북미 투어로 시작을 알리 고, 아시아 투어로 이 글을 읽을 대다수의 독자를 방 문하기 전 그 사이, 유럽 투어의 후기로 크로마코피 아의 세계를 슬쩍 방문해 보자.

## Paris Texas & Lil Yach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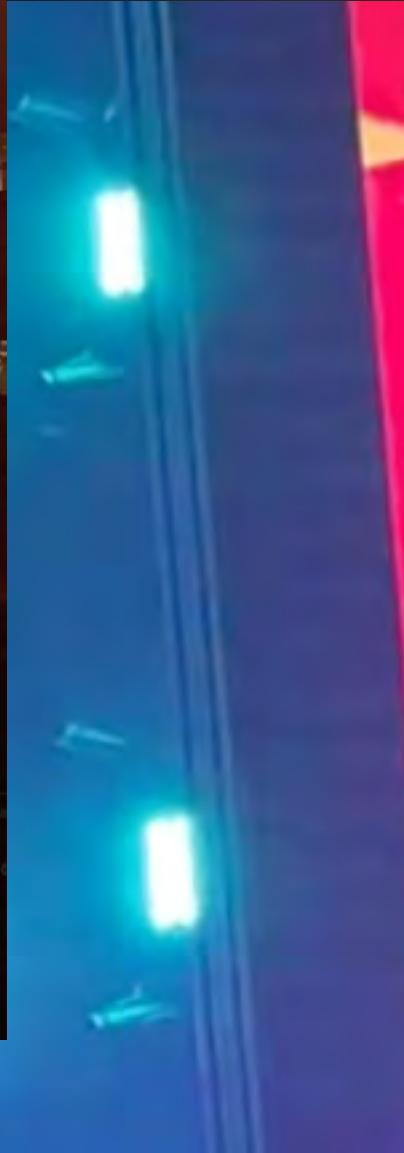
공연장에 들어서 거대한 초록색 컨테이너가 뿐어내는 위엄에 감탄하다 보면, 몇 시간의 기다림에 지쳐가는 타이밍이 온다. 친구와 함께 공연에 간 것이 아니라면 배터리 걱정에 휴대폰도 쳐다보고 있지 못할 때쯤, 공연장은 암흑 속에 빠지고, 동시에 환호성에 가득 찬다. 한 아티스트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열정이 드디어 타오르기를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격한 운동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이 필요한 법. 그리고 이 예열을 누구보다 확실히 도와주는 랩 듀오, 우리의 Paris Texas다. 정규 1집 <MID AIR>의 수록곡 “PANIC!!!”의 전주와 함께 중앙 돌출 무대에서 강렬히 등장하는 LA의 이 힙합 듀오는 관객을 하이프 하는 데에 기괴하리만큼 능숙하다. 30분 언저리의 공연 시간 동안 에너지는 단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매 곡마다 모쉬핏을 시작시키고, 상의 탈의까지 마다하지 않는 이들의 퍼포먼스 매너에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라이브 실력이 만나자, 어느새 타일러가 이들에게서 발견해 낸 매력이 내 안에도 스며드는 듯하다. 호응에 대한 끝없는 감사 인사와 부족한 곡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는 태도까지, 신세대 힙합을 이끌어갈 파리스 텍사스로, 크로마코피아 투어는 시작을 알린다.





잠깐의 인터미션 이후 또 다른 슈퍼스타가 관객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다. 그 인지도의 차이만큼 더욱 열광적인 호응으로 공연장을 한층 더 달구는 야티의 무대는 게스트 그 이상의 존재감이다. 다양한 트랩과 레이지 뱅어, "Poland"와 같은 바이럴 송, <Let's Start Here.>의 부드럽고 사이키델릭한 곡들을 통해 단지 분위기를 끌어 올리는 것만이 아닌, 또 다른 헤드라이너를 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야티의 무대 속 가장 큰 매력은 단연 유니크한 톤일 것이다. 그 독특한 음색과 틈의 조합으로 뱉어내는 추임새는 카티의 그것과 유사한 모양새지만 그 재질만큼은 확연히 다르기에 더 매력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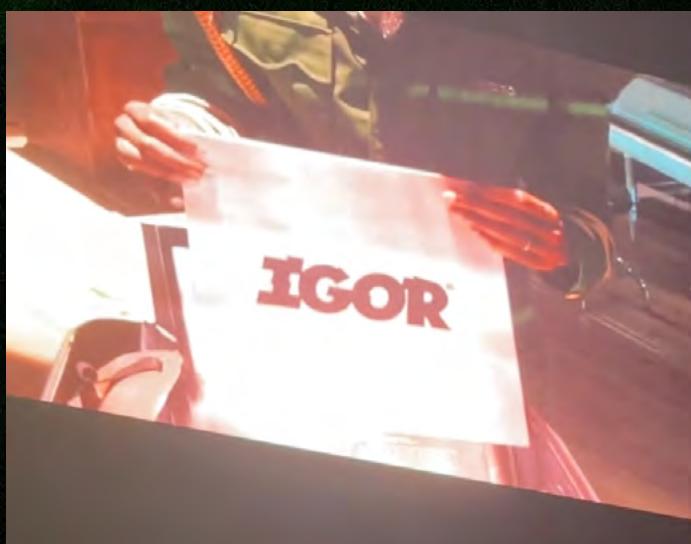


## Tyler, The Creator

그 어떤 게스트라도, 결국은 모두 헤드라이너를 위한 스트레칭일 뿐. 거대한 존재감의 이 괴짜 아티스트가 실루엣을 드러내는 순간, 몇 천, 몇 만 개의 시선은 모두 한 곳으로 모인다. <CHROMAKOPIA>의 시작을 알리는 인트로 트랙 “St. Chroma”의 시작과 함께 시작되는 떼창으로 공연장의 분위기는 한껏 끌어올려지고, 연달아 이어지는 <CHROMAKOPIA>의 트랙들은 거대한 세트장 위에서 그 가치를 빛낸다.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편집증적인 광기가 돋보이는 “Noid”에서 타일러라는 아티스트에게 매료되버린 후 “Judge Judy”를 지나면, 어느새 공중에서 거대한 다리가 내려온다. 이 다리를 지나며 타일러는 <CHROMAKOPIA>의 두 곡을 더 선보이고 (돈다발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면을 벗고 페르소나를 갈아끼울 차례다.



중앙 돌출 무대로 이동한 타일러가 <IGOR>을 바이닐을 꺼내고, 타일러는 광기의 독재자와도 같은 모습에서 상처 많은 러버보이로 탈바꿈한다. 턴테이블에서 플레이되는 노이즈 낸 “IGOR’S THEME”에서 시작되는 모쉬핏은 단연 공연 최고의 순간 중 하나. 이후 여러 번의 변신을 거치며 타일러는 그 휘황찬란한 디스코그래피의 투어를 시작하고, 소파에 누워 부르며 감정을 끌어올리는 “SORRY NOT SORRY”를 통해 변신을 끝마친다.





FE<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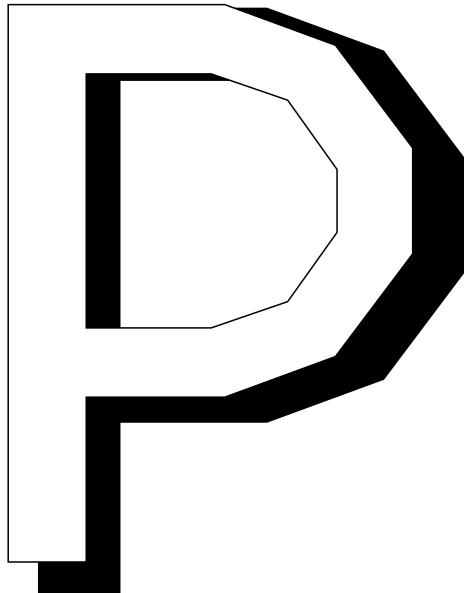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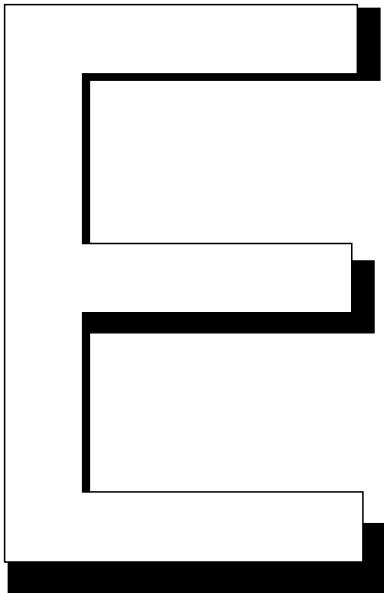


또 한 번 다리로의 이동에서 두 가지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타일러는 공연 최고의 무대를 준비한다. 메인 스테이지로 이동해 부르는 “Thought I Was Dead”에서의 타일러는 공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퍼포머의 라이브 능력이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준다. 감정과 광기가 가득 담겼음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간에 멈추는 비트에도 페이스를 놓지 않는 타일러의 모습만으로 수십만 원의 티켓에는 충분한 가치가 담긴다. 이후 광란의 모쉬핏을 자아내는 “NEW MAGIC WAND”(필자는 이 모쉬핏에서 안경을 잃어버렸으며, 핸드폰 카메라도 깨졌다..)를 제외하면 공연은 마무리를 예고하는 잔잔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I Hope You Find Your Way Home”을 통해 타일러는 공연을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며 공연을 끝맺는다. 우리 모두, 꼭 집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 주의사항

- 1 VIP 패키지를 구매했다면, 굿즈 수령 방법을 꼭 숙지해 가자. 필자는 그 어떤 공지도 받지 못해 날려버렸다..
- 2 스탠딩석에는 절대로 가방을 들고가지 말자. 특히나 모쉬핏에 참여할 거라면 절대 절대 안된다.
- 3 투어 머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머치 구매는 공연 후로 미루는 것도 괜찮은 방법.



## EDITOR'S PICK

Morphine 《Cure for Pain》

Black Country, New Road 《Forever Howlong》

Bon Iver 《SABLE, FABLE》

Panchiko 《Ginkgo》



# Morp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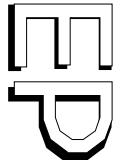
## 《Cure for Pain》

Released  
93. 9. 14.

- 1 Dawn
- 2 Buena
- 3 I'm Free Now
- 4 All Wrong
- 5 Candy
- 6 A Head with Wings
- 7 In Spite of Me
- 8 Thursday
- 9 Cure for Pain
- 10 Mary Won't You Call My Name?
- 11 Let's Take a Trip Together
- 12 Sheila
- 13 Miles Davis' Funeral

모르핀(Morphine)이라는 밴드 이름부터 쾌락적이며 자기 파괴적이다. 아니나 다를까, 프런트맨 마크 샌더맨(Mark Sanderman)의 짧은 삶은 여러모로 파괴로 가는 여정이었다. 온갖 노동의 경험으로 인해 이미 성한 몸에 위해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를 망친 결정적인 요인은 중독이었다. 그는 유혹과 쾌락 없이는 무대 뒤편의 일상으로부터 언제나 쓰레기에 불과하게 됨을 자조한다. <Cure for Pain>의 타이틀은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로서의 반성과 현실 속 괴로움으로부터의 일탈적 회복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 언뜻 <킁>의 C Jamm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는 랩스타나 록스타가 되는 것보다 술집 구석에서 몰래 챔을 하길 더 좋아한다. 그리고 본작에는 연민 대신 행복에 관한 진정한 고찰이 있다. 물론 더 뻔뻔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 뻔뻔함에 기끼어 취하게 만드는 것은 특유의 즉흥성과 간결함이 한몫한다. '낫추기'와 '빼기'를 미덕으로 삼는 그의 철학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다. 직접 명명한 로우 록(low rock)은 저음의 그루브와 간소한 밴드 편성 외에 더 강조할 것이 없다. 독특하다면 기타 대신 색소폰이, 베이스는 6현 대신 2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이들의 록, 혹은 재즈는 그것들 정도면 충분하다. 인생이나 음악이나 삐걱거리는 하모니 사이 퇴폐와 환희가 공존하는 것 그뿐이다.

EDITOR 감상주의



# Black Country, New Road

## 《Forever Howlong》

Released  
25. 4. 4.

- 1 Besties
- 2 The Big Spin
- 3 Socks
- 4 Salem Sisters
- 5 Two Horses
- 6 Mary
- 7 Happy Birthday
- 8 For the Cold Country
- 9 Nancy Tries to Take the Night
- 10 Forever Howlong
- 11 Goodbye (Don't Tell Me)

넥스트 Slint로 칭송받던 밴드가 Arcade Fire로 변모하고, <Forever Howlong>이라는 여정으로 이어지기까지. 블랙 컨트리, 뉴 로드(Black Country, New Road)는 격동의 세월을 거쳐왔다. 밴드의 핵심이자 프런트맨이 팀을 떠났고, 밴드의 정체성에는 자연스레 의문이 가해졌다. 남겨진 조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했을까? 이들이 선택한 건 'Issac 지우기' 정도가 아니었다. 이전 작들이 거칠고 남성적이지만 우울을 머금은 독무였다면, 본작은 하나의 공동체가 선보이는 악극에 가깝다. 오프너 "Besties"만 해도, 추구했던 강렬함보다는 다분히 장식적인데, 기존의 윈드밀 신(Windmill Scene)이 지닌 포스트-펑크(Post-Punk)적 혼돈보다는 - 매우 섬세하고 여성적이다. 스포트라이트가 멤버 한 명에게 돌아가는 걸 무척이나 경계하는 듯, 협업적 면모가 꽤나 일정하게 할당되어 있는데 - 색소폰, 하프시코드, 리코더 등의 다양한 악기는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공동체 속에 서로 엉겨 따뜻함만을 상기시켜준다. <Forever Howlong>은 저편으로 밀려났던 이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어, 울타리를 허물고 씨앗을 하나하나 심어가는 과정이다. 아직은 완벽하진 않고 너저분한 순간들이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블랙 컨트리, 뉴 로드의 미래는 인간적이고 밝다.

EDITOR SRIK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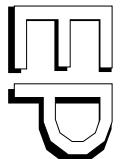
## Bon Iver 《SABLE, fABLE》

Released  
25. 4. 11.

- 1 THINGS BEHIND THINGS  
BEHIND THINGS
- 2 S P E Y S I D E
- 3 AWARDS SEASON
- 4 Short Story
- 5 Everything Is Peaceful Love
- 6 Walk Home
- 7 Day One  
(feat. Dijon and Flock of Dimes)
- 8 From
- 9 I'll Be There
- 10 If Only I Could Wait  
(feat. Danielle Haim)
- 11 There's A Rhythmn
- 12 Au Revoir

<SABLE, fABLE>의 발매 일전에 공개된 EP <SABLE,>에서 본 이베어(Bon Iver)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머무르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다. "S P E Y S I D E"에서 그는 간결한 어쿠스틱 사운드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냈었다. 그러나 <SABLE, fABLE>에서 빛나는 순간들은 모두 변화와 통합을 두려워하지 않는 트랙들에서 나타난다. "AWARDS SEASON"은 변화를 포용하는 자세를 전자음과 색소폰 사운드로 풍요롭게 풀어낸 트랙이며, "Day One"과 "From" 역시 시간과 인간관계에 관한 반추를 경쾌한 리듬과 직조된 멜로디로 장식한 훌륭한 넘버들이다. 앨범의 후반부에서 그는 원을 그리듯 출발점으로 돌아오지만,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되찾으려 노력하지 않는다. 그가 본작을 통해 마침내 받아들인 것은 변화 그 자체, 그리고 변화 속의 존재로 살아가려는 자신이다. <SABLE, fABLE>은 그러한 내면을 음악과 가사의 힘을 통해 풀어낸, 덧없음에 관한 하나의 찬사이자—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조심스러운 통찰이다.

EDITOR 자카



## Panchiko 《Ginkgo》

Released  
25. 4. 4.

- 1 Florida
- 2 Ginkgo
- 3 Shandy in the Graveyard  
(feat. billy woods)
- 4 Honeycomb
- 5 Shelled and Cooked
- 6 Lifestyle Trainers
- 7 Chapel of Salt
- 8 Vinegar
- 9 Mac's Omelette
- 10 Subtitles
- 11 Formula
- 12 Rise & Fall
- 13 Innocent

1997년 결성되어, 30장 한정판의 데모 앨범을 발표한 뒤 20년간 해체된 이후, 그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하기까지. 현재의 인디 음악씬에서 판치고(Panchiko) 만큼 독특한 서사를 갖고 있는 밴드는 없다. 그리고 이들은 <Ginkgo>를 기점으로 그 신화적인 서사에서 벗어나 현재진행형의 밴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본작은 데뷔 EP <D>E>A>T>H>M>E>T>A>L>의 몽환적인 질감과 <Failed at Math(s)>의 실험 정신을 바탕으로 그들만의 음악적 언어를 한층 더 유려하게 다듬은 결과물이다. "Shandy in the Graveyard"의 예상치 못한 billy woods의 등장은 예상외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Honeycomb"의 후반부에서 로파이 음향이 선명한 컬러로 폭발하는 순간은 이들의 감각이 여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한다. 어느 하나 혁명적인 순간은 없지만, 이들의 매력은 자연스럽고 나른한 멜로디 전개 속에서 멋지게 살아 숨 쉬고 있다. <Ginkgo>를 기점으로 이들은 현재진행형의 밴드로 기억될 것이며, 그렇기에 우리는 본작을 일종의 터닝 포인트로 받아들여도 괜찮을 듯하다.

EDITOR 자카



# w/HOM # 22

## 2025. 05. 12.

### INTRODUCING

Tdf 『CULTURE』  
SRUKSAN

Teto 『Maior Que O Tempo』  
감상주의

Lil Durk 『Deep Thoughts』  
moogsick

Nine Vicious 『Tumblr Music』  
SONGCHICO

Will Smith 『Based On A True Story』  
자카

2holis 『star』  
blvckmatter

Wu-Tang Clan  
『Black Samson, The Bastard Swordsman』  
ryuzimoto

Kai Angel 『ANGEL MAY CRY 2』  
SONGCHICO

### FULL

Backwash 『Only Dust Remains』  
자카

Skrillex  
『F\*CK U SKRILLEX YOU THINK UR ANDY WARHOL BUT UR NOT!! <3』  
denim

Jane Remover 『Revengeseekerz』  
SRUKSAN

Chy Cartier 『No Bring Ins』  
감상주의

Ken Carson 『More Chaos』  
SONGCHICO

Blu & August Fanon 『Forty』  
자카

### CLASSIC

Missy Elliott 『Miss E... So Addictive!』  
감상주의

Common 『Be』  
자카

### FEATURE 1

제 3회 '케에첼이 좋아하는 랜덤리뷰'

Yoosin Kim 『sDauurem』  
자카 → moogsick

Lil Bo Weep 『SOLOS』  
SONGCHICO → SRUKSAN

Blackstarkids 『CYBERKISS\*』  
공ZA → SONGCHICO

999 Heartake Sabileye  
『Songs For Spaces』  
denim → 감상주의

Hiroshi Suzuki 『Cat』  
ryuzimoto → denim

LXST CXNTURY 『UNIVERSE OF THE PAST』  
SRUKSAN → 공ZA

Coldcut 『Let Us Play』  
moogsick → loding

Diggy-MO' 『BEWITCHED』  
loding → ryuzimoto

Asian Kung-Fu Generation  
『君繫ファイブエム(KIMI TSUNAGI FIVEM)』  
감상주의 → 자카

### FEATURE 2

크로마코피아 투어 미리보기  
blvckmat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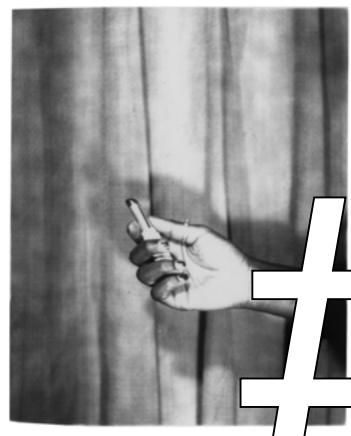
### EDITOR'S PICK

Morphine 『Cure for Pain』  
감상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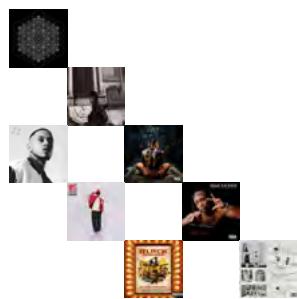
Black Country, New Road  
『Forever Howlong』  
SRUKSAN

Bon Iver 『SABLE, fABLE』  
자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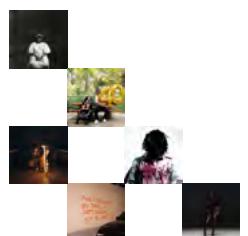
Panchiko 『Ginkgo』  
자카



# Worl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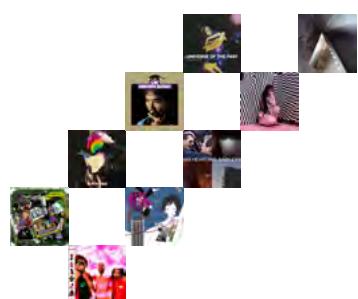


# Ha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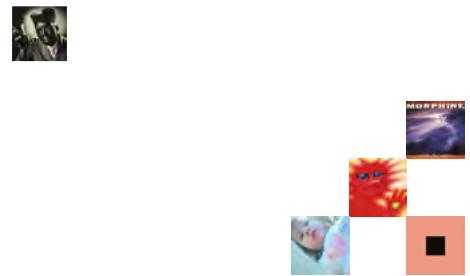
# f

# Matters



ALL IMAGE RIGHTS BELONG TO THEIR RESPECTIVE OWNERS.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해당 소유자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 22



# KHL WORLD / HAUS OF MATTERS



Contact.  
[khlhomofficial@gmail.com](mailto:khlhomofficial@gmail.com)

Instagram.  
[@hausofmatters](https://www.instagram.com/@hausofmatters)